

3421
340.211

北 韓 實 態 (Ⅱ)

1983

국회사상

국회사상위원회

국회사상위원회

국회사상위원회

국회사상위원회

國土統一院
統一研修所



北 韓 實 態 (Ⅱ)

- I. 主體思想 批判..... 3
- II. 北韓의 近代史 捏造..... 21
- III. 北韓의 政党·社会團體 現況..... 59



I. 主體思想 批判

金昌順
(北韓研究所長)

目 次

1. 主體思想의 背景	5
2. 主體思想의 形成過程	9
3. 主體思想의 本質	14

1. 主體思想의 背景

마르크스·레닌主義를 하나의 思想體系라고 한다면 그 範疇에서는 北韓共產主義도 하나의 思想體系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北韓共產主義는 스스로를 「主體思想」이라고 稱하면서 『가장 正確한 마르크스·레닌主義』¹⁾임을 主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릇 하나의 思想體系는 그가 根據하는 哲學的 原理가 있어야 한다. 哲學의 뒷받침 없는 思想이 없고, 思想의 뒷받침 없는 理論이 없으며, 理論의 뒷받침 없는 主義가 成立될 수 없다.

北韓共產主義가 스스로를 하나의 思想體系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가 根據하는 哲學的 原理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다만 그때마다의 獨裁者의 「敎示」를 語錄化하여 이것을 北韓의 「절대적인 革命思想」 곧 「唯一思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前近代의 呪文이라면 몰라도 近代의 意味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는 없다.

金日成集團도 이 點에 留意했음인지 北韓共產主義의 이데올로기의 特徵을 「主體思想」 또는 「主體哲學」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의 原理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그들의 理論的 解明은 『人民이 모든 것의 主人이며 모든 것을 決定하는 것도 人民이다』²⁾라고 하였다. 一見하여 「人本主義」 또는 「人民思想」같이 보인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社會科學에 따르면, 人間思想은 客觀의 反映으로서의 觀念形態이다. 그리하여 마르크스主義는 유럽의 發展된 資本主義國家에서 勞

註1. 『철학사전』,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지, 사회과학출판사 발행, 평양, p.579.

註2. 『정치사전』, 사회과학출판사 발행, 평양, 1973年 12月, p.1025.

動者階級이 獨自의 政治勢力으로 歷史舞臺에 登場하게 된 時期에 「프롤레타리아」革命的 要求를 反映한 思想으로 出現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어떤 時代의 어떤 社會에서 어떤 要求를 反映한 思想으로 出現했다는 것인가?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論할 때에는 一般的으로 「당선전선동(黨宣傳煽動)일군들 앞에서 한 演說」(1955.12.28)을 引用한다. 그 理由는 「主體」라는 用語를 이 演說에서 처음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金日成의 이 演說은 後日 「思想事業에서 教條主義와 形式主義를 퇴치하고 主體를 確立할데 대하여」³⁾라는 題目을 달아 잘 다듬어지고 補完된 論文으로 北韓의 여러 文獻集에 收錄되었다.

金日成은 이 연설에서 共產黨의 指導幹部들이 歷史, 文學 등에서 자기 나라의 것보다 남의 것만 좋다고 하고 우리의 것은 소홀히 하는 경향을 열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학교에서는 조선력사의 강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戰爭때 中央黨學校 課程에서 세계사는 1년에 160시간이나 되어 있었으나 조선력사는 극히 적은 시간밖에 배당되어 있지 않았읍니다』⁴⁾라고 했고, 또는 『내가 박창옥(朴昌玉)과 그에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카프>에 反對하느냐고 물어보니 그들은 대답하기를 거기에 일부 변절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영(李箕永)동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프롤레타리아 作家들이 主要核心으로 활약하던 <카프>가 무의미한 存在였단 말입니까?』⁵⁾라고 했

註3. 『김일성저작선집』(1), 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 1967年, pp.560~585.

註4. 上掲書, p.566.

註5. 上掲書,

여기에서 말하는 <카프>(KAPF)는 「朝鮮프롤레타리아藝術同盟」을 指稱하는 것으로써 同組織은 1925年 7月 結成되었다. 李箕永은 越北作家 「民村」을 말함이다.

으며, 또한 『선전사업에서 이토록 '주체'를 잃어버린 결과 많은 동무들이 革命家를 尊敬할 줄 모르는 것도 여기에 기인합니다』⁶⁾라고 하였다.

金日成은 이 演說에서 「人民軍隊의 傳統」과 「主體思想」을 애써 결부시키기도 했는데, 그 眞意는 主體思想은 人民軍隊의 傳統에서 나왔고 人民軍隊의 傳統은 金日成에 의하여 創造되었다는데 두고 있다.

1958年12月 當時 金日成은 이 演說을 통하여, 脫蘇 脫中共의 自主的 獨立路線을 追求하자는데 제1의 目的을 둔 것은 아니고, 要는 黨內의 有力分子들에게 6.25 敗戰의 責任을 轉嫁시킴으로써, 오로지 金日成 自身만이 가장 옳았다는 權力鬭爭의 구실을 正當化하는데 第1의 目的을 두었다.

1958年12月이란 時期는 共產北韓이 蘇聯과 中共의 支援에 의하여 戰後復舊 3個年計劃과 第1次 5個年計劃을 앞당겨 遂行했다고 主張하던 때 이므로, 이때에 金日成이 脫蘇 脫中共을 公然化했다고는 評價되지 않는다.

韓國休戰 直後에 南勞黨幹部들에게 6.25 敗戰 責任을 轉嫁하여 集團死刑을 단행했고, 뒤이어 蘇聯派와 延安派를 各個擊破式으로 權力鬭爭을 展開中인 金日成은, 自身과 人民軍幹部(게릴라出身으로서 金日成의 臣僕)만이 「祖國防衛」의 英雄이었다는 구실을 찾아야 했고 正當化시켜야 했다.

그러자면 祖國과 民族을 위하여, 가장 올바르게 싸운 非事大的 主體의 勢力은 金日成이고 그밖의 者들은 非主體的 事大主義 勢力으로 烙印해야 했다.

6.25 南侵時 黨中央副委員長이었으며 蘇聯派의 領袖格인 許哥誼 및 內務相이었으며 延安派의 實力者이었던 朴一宇와 黨內의 最高 理論政策家였던 蘇聯派의 實力者 朴昌玉과 그밖의 金在郁 등을 쓸모없는 事大主義分子들로 烙

註 6. 上揭書, p.565.

印하고 그들 때문에 6.25 敗戰을 當한듯이 告發해 버렸다. 卽 『戰爭時期에 軍隊內에서의 政治事業의 方法問題를 가지고 許哥誼, 金在郁, 朴一宇가 쓸데없이 서로 싸운 일이 있습니다. 蘇聯에서 나온 사람들은 蘇聯式으로, 中國에서 나온 사람들은 中國式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蘇聯式이 좋으니 中國式이 좋으니 하면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⁷⁾

金日成 演說의 이 대목은 그때로서는 脫蘇 脫中共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스탈린死後의 黨內不安과 6.25 敗戰의 責任轉嫁를 위한 權力鬭爭의 表現이었다.

어떤 論者들은 金日成演說의 朴永彬批判 部分을 脫蘇的 民族主義라고 評價하는 傾向이 있지만, 지나친 主觀的 解釋이 아닌가 싶다. 卽 金日成은 同 演說에서 『朴永彬동무는 蘇聯에 갔다와서 하는 말이 蘇聯에서는 國際緊張狀態를 緩和하는 方向이니 우리도 미제국주의를 反對하는 口號를 집어치워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主張은 革命的 창발성과는 아무런 共通性도 없으며 우리 人民의 革命的 경각성을 무디게 하는 것입니다. 美帝國主義者들은 우리 강토를 불태우고 무고한 人民들을 大量的으로 殺戮하였으며 지금도 계속 우리 祖國 南半部를 強占하고 있는 천추에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원썩가 아십니까』⁸⁾ 고 했는데, 이 대목을 「主體思想」의 本領이라고 보는 傾向이 있다. 다시 말하면 金日成이 蘇聯의 對外政策에 反對하고 自主路線을 追求한 것이라고 評價하는 것이다.

그러나 金日成은 同 演說을 이어가기를 『美帝國主義를 反對하는 우리 人民의 鬭爭이 國際緊張狀態를 緩和하기 위한 蘇聯人民의 努力과 矛盾된다고

註 7. 上揭書, p.569.

註 8. 上揭書, p.567.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⁹⁾고 했고, 이어서 『蘇聯人民을 비롯한 世界平和愛護人民들의 緊張狀態 緩和를 위한 鬭爭은 우리 人民의 反帝國主義 鬭爭에 더욱 유리한 條件을 지어주는 것입니다』¹⁰⁾라고 했다.

金日成의 이 主張은 蘇聯의 對美共存路線과 北韓의 反美鬭爭은 相互 對立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라 相補關係에 있음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蘇聯의 對外政策 路線을 反對하고 脫蘇 民族主義로 나아가자는 主張이 아니라 蘇聯의 對外政策 路線을 支持하고 있다.

性急한 分析家들은 金日成演說(1955年12月28日)이 마치 스탈린死後 國際共產主義의 多元化 現象의 幕을 열게 한 主體思想의 구체적 表明인 것처럼 評價하는 傾向까지 있지만 그것은 同 演說의 背景을 잘못 診斷한데서 基因하는 잘못이다. 當時 金日成은 6.25 敗戰의 責任을 남에게 轉嫁하며 또는 스탈린死後의 모스크바 變化에 따른 北韓共產黨의 黨內不安을 克服하여 自身은 毅然히 獨裁者의 지위를 維持하고자 黨內 有力分子들을 所謂 事大主義·教條主義·形式主義 分子 등으로 烙印 斷罪하고자 한 것이 同 演說의 底意였다. 결국 脫蘇 自主의 具體的 表明이 아니었다.

2. 主體思想의 形成過程

1961年 9月 第4次 黨大會를 통하여 金日成의 1人體制가 實現되었다. 自派에 속하지 않는 黨內的 有力分子들을 一掃하고 自派만의 權力

註9. 上揭書,

註10. 上揭書,

構造를 登場시킨 것이다. 이를 起點으로 하여 北韓共產主義는 「金日成革命傳統」을 全面化하는 段階에 들어갔다.

여기서 金日成革命傳統이라고 하는 것은 日帝時代의 抗日民族運動은 오직 北韓의 金日成만이 主流이었다는 조작된 傳統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있어서는 國內의 3.1運動은 勿論 國外的 上海大韓臨時政府活動 및 그밖의 國內外的 文化的 民族運動과 武裝獨立鬪爭은 모두 타락한 부르조아民族主義分子들에 의하여 指導되었기 때문에 모두 失敗하였다고 主張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끝까지 용감하게 抗日鬪爭을 벌인 것은 오직 人民뿐이며 이 人民鬪爭을 領導한 者가 바로 오늘의 北韓 金日成이라는 것이다. 또 그같은 革命傳統은 北韓 金日成을 核으로 한 그 一派에 의하여 樹立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主張은 한마디로 民族的이고 愛國的인 勢力은 언제나 人民과 共產主義者들 뿐이고 이것의 領導者는 過去나 지금이나 오직 北韓의 金日成뿐이라는 데 있다. 그리하여 그같은 主張을 根氣있게 傳播하고 뿌리를 내리게 함으로써 共產化 統一의 主導權을 掌握하자는데 目的이 있다.

1967年 5月, 金日成 集團은 第4期 第15次 全員會議를 통하여 「黨의 唯一思想體系確立」을 公式化하였다. 이 措置는 「金日成的 革命思想」을 北韓「朝鮮勞動黨」의 「唯一思想」으로 規定하고 이밖의 어떤 思想도 배격한다는 데 目的을 두고 있다.

金日成은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確立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即 『一般的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黨 建設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意味합니까? 그것은 歷史發展의 合法則性和 時代의 절박한 要求, 勞動階級の 歷史的 任務, 階級的 利益의 互相關係와

革命鬭爭이 進行되는 環境, 그리고 革命遂行의 방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며, 人民大衆의 利益을 가장 철저히 代表하여 階級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멀리 내다보는 政治的 首領의 思想으로 全黨이 武裝하고 그에 基礎하여 모든 黨員들의 思想意志 및 行動의 完全하고도 無條件的인 統一을 이룩하여 黨의 組織的 意思인 首領의 革命思想을 指導的 指針으로 삼고 黨中央의 唯一的 指導밑에 革命鬭爭과 建設事業이 進行되도록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¹⁾

金日成의 主張에 의하면 政治的 首領의 革命思想으로 全黨이 武裝하고 모든 黨員들이 한사람처럼 無條件的으로 行動統一을 이룩하여 革命鬭爭과 建設事業을 遂行하자는 것이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確立한다는 취지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北韓의 政治的 首領」을 자처하는 金日成이 直接 그같은 措置를 내세우면서 要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르크스·레닌主義 黨 建設의 基本原則이며 社會主義 革命의 勝利와 共產主義運命을 決定하는 重大한 問題입니다』²⁾ 라고 하였으니 北韓社會가 金日成의 自閉的 王國으로 되어진 것은 當然하다. 그같은 社會는 가두어 놓고 實現하지 않는 以上 開放的으로는 不可能하다. 남이 그것을 보면 감옥이라고 非難할 것이기 때문에 自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住民들에게 『首領의 偉대한 革命思想과 그 具顯인 黨政策을 깊이 알아야만 黨의 意圖대로 思考하고 行動할 수 있으며 黨政策을 관

註1. 가) 『철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0年, p.152.

나) 『정치사전』,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3年, p.264.

註2. 上掲書. p.153, p.264.

철하기 위한 鬪爭에서 信念이 생기고 鬪志와 熱情이 나올 수 있다.』³⁾
고 했으니, 이같은 社會를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은 當然하다. 그
것은 前近代의이며 어떤 意味에서는 酋長制보다도 더 未開한 統治理念과
制度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1960 年代의 北韓共產主義는 金日成의 「唯一思想」으로 一色化
되어갔는데, 그 展開方法은 『金日成同志에 의하여 抗日武裝鬪爭時期에 이
룩된 우리 黨의 빛나는 革命傳統을 깊이 研究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
하며 生活과 實踐에서 具顯하여야 한다』⁴⁾는 것이었다.

金日成의 1人體制實現과 때를 같이하여 그같은 展開方法으로 金日成
革命傳統教育을 全面化시킨 目的은 두말할 것도 없이, 蘇聯의 利益代辯者
로 出發한 金日成에게 前歷은 지워버리고 民族的 正統性을 賦與하기 위
한 것이었다.

무엇이 金日成의 唯一思想이냐에 대하여 金日成은 말하기를 『그것은 思想에
서 主體, 政治에서 自主, 經濟에서 自立, 國防에서 自衛의 原則으로 一貫
된 우리 黨의 思想이다. 우리 黨의 思想, 우리 黨의 政策은 朝鮮革命
을 完成하고 朝鮮人民을 社會主義, 共產主義로 가장 正確하게 이끄는, 우
리 現實에 創造的으로 適用된 마르크스·레닌主義이다』⁵⁾라고 하였다.

金日成의 이 主張은 곧 生活規範化되었는데, 그 規律은 「抗日武裝時期
의 金日成의 革命傳統」만을 無條件 따라 배우고 信奉할 것이 아니라,
現時에 있어서의 金日成의 日常的 一言一句까지도 不可侵의 「教示」로써

註 3. 上掲書, 『철학사전』, p.154.

註 4. 上掲書, p.155.

註 5. 上掲書, p.59 (「金日成 同志」編)

「絶對的으로 받아들이는 無條件性이어야 한다」는 매우 嚴格한 것이었다. 그것은 卽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黨員들과 勤勞者들이 革命的 偉대한 首領 金日成同志의 敎示와 그 具顯인 黨政策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自己의 뼈와 살로 만들어 우리 黨의 唯一思想, 主體思想으로 튼튼히 武裝하여야 한다』⁶⁾는 것이며, 이렇게 해야만 『事大主義, 敎條主義, 資本主義 思想, 封建儒敎思想과 같은 온갖 反黨的 및 反革命的 思想들을 옳게 가려내고 그것을 反對하여 成果的으로 鬪爭할 수 있으며 마르크스·레닌主義의 革命的 原則과 勞動階級의 革命偉業에 끝까지 忠實할 수 있다』⁷⁾고 하였다. 또한 그와같이 해야만 北韓의 共產黨은 「金日成의 黨」이 된다고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卽 『첫째는 首領의 革命思想(黨의 唯一思想, 主體思想)으로 全黨을 튼튼히 武裝시켜 모든 黨員들로 하여금 자기 首領의 革命思想外에는 그 어떤 다른 思想도 絶對로 容納하지 않는다. 둘째는 首領을 中心으로 하는 全黨의 思想意志 및 行動의 完全하고도 無條件的인 統一을 이룩하여 모든 黨員들로 하여금 자기 首領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確固한 信念을 가지는 것이다. 셋째는 黨의 組織的 意思인 首領의 革命思想을 唯一한 指導的 指針으로 삼고 首領의 唯一的 領導밑에 革命鬪爭과 建設事業을 進行하는 것이다』⁸⁾라고 하였다.

그후(1974年2月) 地方黨에 시달된 「黨의 唯一思想體系確立 10大原則」은 金日成의 革命思想 곧 「主體思想」을 信念으로 하고 金日成의 「敎

註6. 上揭書, 『정치사건』, p.265.

註7. 上揭書, p.265.

註8. 上揭書, p.267.

示」를 자(尺)로 하여 모든 것을 재서 보며, 金日成의 思想意志대로만 思考하고 行動하여야 한다고 嚴格히 規制하였으며, 首領의 權威를 毀損시키는 그 어떠한 些少한 要素도 非常 事件化하여 그와 非妥協的인 鬭爭을 벌여야 한다고 警告하였다.⁹⁾

여기서는 歷史發展에서 人民의 役割을 보다 重視하는 「歷史的 唯物論」과는 달리 首領의 役割만을 決定視하고 있다. 곧 反人民的 個人英雄主義를 露骨的으로 나타내고 있다. 뿐만아니라, 자기들의 首領밖에 모르는 盲目的 排他主義를 強力히 獎勵하고 있다. 이때로부터 北韓 共產主義는 統治이데올로기의 表現을 金日成의 「主體思想」; 「金日成主義」로 나타내는 時代에 들어갔다.

3. 主體思想의 本質

金日成의 「主體思想」 또는 「金日成主義」가 하나의 思想體系라고 한다면 이것이 基礎하는 哲學的 原理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北韓 共產主義의 公式文獻들은 定義하기를 『主體思想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革命과 建設의 主人은 人民大衆이며 革命과 建設을 추종하는 힘도 人民大衆에게 있다는 思想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運命의 主人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運命을 開拓하는 힘도 자기 자

註9. 『內外通信』(綜合版 第14號)收錄, 서울, 1981年, pp.110~112.

신에게 있다는 思想입니다』¹⁾라고 하였고 또는 『主體思想은 모든 것을 사람을 中心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服務하게 하는 사람 중심의 世界觀이며 勤勞人民大衆의 自主性を 實現하기 위한 革命學說입니다』²⁾라고 하였다.

그러면 이 定義에서 말하는 人民, 사람이란 어떤 存在인가? 이에 대하여 北韓共產主義는 規定하기를 『사람은 勞動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人間의 勞動은 언제나 社會的 性格을 띤다. 生産道具를 만들고 자연을 改造하는 勞動활동은 사람들의 共同活動 과정에서만, 일정한 社會的 關係속에서만 進行될 수 있다. 人間은 언제나 社會的 關係를 맺고 있다. 어떤 社會歷史的 條件에서 어떤 社會的 關係를 맺고 살며 일하는가에 따라 人間의 思想과 見解, 온갖 實踐活動이 規定된다. 이것은 人間의 本質이 어떤 個別的인 個人에 고유한 추상물이 아니라 社會的 關係에 의하여 規定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

人間은 社會的 存在인만큼 그들의 참된 價値는 오직 社會와 集團의 利益, 社會의 進步的 發展을 위한 鬭爭에 積極 參加함으로써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革命하는 時代의 人間의 價値와 보람은 革命鬭爭에 參加하여 肉體的 生命은 버려도 政治的 生命은 더럽히지 않는다는 革命的 信條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데 있다. 반동적인 宗教人 觀念論者들은 人間의 本

註 1. 가) 『김일성저작선집』, 조선로동당출판사, 평양, 1974, p.268.

나) 『정치사건』,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3年 12月, p.1055.

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5年, p.1.

라) 『철학사건』,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0年, p.579.

註 2. 『조선로동당 제 6 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문』 (보고자 김일성)

質을 具體的 社會關係와 分離시키는 非科學的 見解를 퍼뜨리고 있다. 宗教人들은 人間을 神의 意思에 의하여 그 運命이 規定된 存在로 보면서 하느님이나 神의 意思에 맞게 活動할 때에만 幸福을 누릴 수 있다고 떠든다. 이것은 被壓迫 勤勞者들에 대한 搾取階級の 가혹한 搾取와 억압을 正當化하고 그들을 支配階級에게 順從하도록 하여 搾取階級과 搾取制度를 清算하기 위한 勤勞大衆의 鬪爭意識을 마비시키려는데 目的이 있다』³⁾고 하였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人民, 사람에 대한 北韓共產主義의 規定은 根本的으로 反宗教的 마르크스主義的 人間觀이다. 결코 일반적 人本主義思想이 아니다. 歷史的 唯物論(唯物史觀)에서 말하는 階級主義的 人間觀이다. 그러므로 北韓共產主義가 人民 또는 사람을 規定할 때의 肯定과 否定은 人民, 사람일 수 있는 部類의 人間群과 그렇지 못한 人間群으로 社會的 範疇를 갈라 놓는다. 그리하여 肯定的 部類의 人間群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人民, 사람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部類의 人間群은 人民, 사람일 수 없다는 適用을 받게 된다.

北韓의 憲法을 비롯하여 其他의 모든 法律體系는 人民, 사람을 위하여 存在하고 非人民 非人間에 속하는 人間群을 彈壓하기 위하여 威力을 발생한다.

그렇다면 北韓共產主義의 文獻에서 規定한, 모든 것은 人民이 그 主人이며 모든 것을 決定하는 것도 人民이라고 한다면 具體的으로 그같은 人民은 누구냐? 분명히 非宗教的 非傳統的 非資本主義的 人間型에 속하

註3. 上掲書 『철학사전』, p.798.

는 사람들의 群像을 말하는 것이다. 그같은 人間群은 文學的으로 表現하면 「붉은 群像」이라고 하겠는데, 北韓社會에서는 이들만이 모든것의 主人이며 모든 것을 決定하는 것으로 그들 文件에는 規定되어 있다. 그러면 그같은 思想方法의 哲學的 基礎는 무엇에 두고 있는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社會科學에서는 人間의 思想意識은 事物과 現象의 反映物이다. 그렇다면 北韓社會의 무엇을 反映한 「主體思想」, 곧 人民이 모든 것의 主人이며 모든 것을 決定하는 것도 人民이라는 思想인가?

北韓共產主義가 말하는 「主體思想」이란 것이 정말 北韓의 社會 現實에 土著한 科學的 思想일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은 長久한 金日成 一人獨裁의 共產治下에서 創造性, 能動性, 勤勉性을 잃어버리고 오직 共產黨의 指示대로만 機械的으로 따라 움직이는 非創造的 非能動的 無氣力的 人民에 대하여 너희들이 모든 것의 主人이고 모든 것을 決定하는 것도 너희들이니까 이제부터는 每事에 主人意識을 가지고 臨하라는 「思想的 체적질」이어야 할 것이다.

事實 北韓住民들은 財産에 대한 철저한 所有禁止와 禁慾을 法律, 道德的으로 強制 當하고 있기 때문에 所有慾에 의한 創造性도 能動性도 喪失하였고 貯蓄慾에 의한 勤勉性도 喪失한 諦念의 人間群이라 할 것이다.

이같은 無生命의 北韓住民에게 生氣를 불어 넣어 所謂 革命과 建設을 위한 思想的 체적질을 하자는 것이 「主體思想」이라면 果然 그것은 北韓의 社會 現實을 反映한 統治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無氣力的 北韓住民에게 主人意識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티토가 내놓은 「主人意識의 鼓吹」를 모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티토는 스탈린의 壓力下에서 獨立과 經濟難 克服을 위하여 1950年 6月 勞働者自主管理制 (System of Worker's Self-management)를 創設하고 勞働者들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自身을 단지 賃金勞働者라는 觀念을 벗어나 工場의 主人이라는 主人意識을 鼓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金日成은 티토主義의 實質的 內容은 하나도 따지 않고 다만 「너희들이 主人이다」는 口號만을 따다가 티토主義가 거둔 效果를 노린 것인지 모른다. 卽 티토主義는 「勞働者自主管理制」라는 制度的 裝置가 보장되어 있지만 金日成의 「主體思想」의 경우는 觀念的 분장과 思想的 強壓 道具로만 始終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住民들로부터 面從腹背의 潛在的 反抗心만 더 增大시킬 뿐이다.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北韓에 實踐된 共產統治가 住民의 意思와는 無關한 外來文明의 移植으로서의 他律的 產物이라는 事實을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하기 위한 설부르게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의 道具일 수도 있다. 이 點은 俗된 表現을 빌린다면, 「나는 傀儡가 아니었고 主體이다」는 변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韓人의 共產主義運動史上 正統性이 없는 北韓共產主義로서는 스스로 「主體思想」을 자꾸만 내세워야 할 衝動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그의 個人英雄主義的 本性에서 비롯된 個人崇拜의 理念的 浮華物로 考案되었을 可能性도 있다. 卽 北韓의 金日成은 단지 한 時代의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使童이 아니라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今日의 時代에 맞게 天才的으로 發展시킨 偉대한 思想家이며 「天才的 革命家」라도 되는 것처럼 내세움으로써 金日成은 北韓만의 支配者에 머무르지 않고 世界的 指導者임을 誇示하려는 個人英雄主義的 誇大妄想의 表示일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그것은 「偉大한 人物」이라면 韓半島의 共產化 統一도 그에 依하여 못할 것이 없다는 所謂 革命的 樂觀主義와 宗教와 같은 信仰心을 傳播하고 심어주려는 것이 「主體思想」에 負荷시킨 任務일 것이다.



Ⅱ. 北韓의 近代史 捏造

金 淳 培

(統一研修所 副教授)

目 次

1. 序 論	23
2. 北韓의 歷史觀	25
가. 共產主義的 史觀	25
나. 北韓 歷史觀의 特徵	27
다. 北韓 歷史觀의 變遷	30
라. 北韓의 國史 解釋 事例	32
3. 北韓의 近代史 歪曲 및 捏造	38
가. 近代史 記述의 特徵	38
나. 近代史 歪曲 事例	40
다. 金日成 行蹟 捏造 事例	45
4. 結 論	53



1. 序 論

역사의식을 말할 때, 우리 民族史에서 20세기 후반기를 「解放후의 分斷時代」로 規定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歷史意識은 分斷體制를 基正事實화 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것이 清算되어야 할 時代임을 인식하면서 分斷해소의 方向을 摸索하려는 데에서 나온 것이다.

한 民族이 가장 사랑하고 그 民族에게 소중한 價値는 바로 자기 民族이 걸어온 자기의 歷史인 것이다. 民族이 왜 자기 歷史를 가장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歷史만이 뛰어나게 훌륭하고 歷史 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民族이 자기 歷史를 찾을 때 가장 힘있게 現實을 살아 갈 수 있다는 절실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北韓은 과거의 우리 歷史를 있었던 그대로의 歷史가 아닌, 事實과 완전히 상반되게 記述하면서 民族史를 단절시키고 民族의 分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北韓은 歷史 서술에서 우리 民族을 하나의 全體로 보지 않고 單一民族을 지배층과 피지배층, 唯物論者와 觀念論者 등의 양분법에 의해 둘로 分離시켜 양자간의 葛藤과 對立, 鬭爭을 부각시키고 있다.

北韓에서는 開港 이전인 1860년대까지의 歷史와, 1860년대 이후의 歷史를 각각 獨立시켜 記述하고 있다. 開港 이전의 유구한 우리 民族史는 事實을 변조했거나 달리 解釋하고 있지만 1860년대 이후, 특히 1930년대 이후의 歷史는 金日成 個人活動 중심으로 날조하였는 바 歷史的 事實이 아닌 事件들을 조작해서 虛構로 歷史를 꾸며놓고 있다. 北韓 땅에서는 20세기 전반기의 民族史가, 완

전히 金日成에 의한, 金日成을 위한, 金日成의 歷史가 돼버렸다. 우리는 北韓 當局이 어떻게 國史를 歪曲 變造 捏造했나, 그 實相을 알아야 國土分斷을 해소하고 民族史的 正統性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은 모든 共產主義 國家에서 신봉하는 唯物史觀에 입각해서 民族史를 歪曲하고 있다. 共產國家에서는 지난날 神이나 自然法 등 絶對者의 자리를 唯物史觀으로 대치시켜 共產主義的 歷史信仰을 형성했다.

北韓에서도 代用宗教의 役割은 歷史가 하고 있으며 代用神으로 金日成의 1人 偶像이 들어 앉았다. 나아가 北韓의 文化 風土는 조작된 歷史觀에 의해 형성되었고, 歪曲된 歷史가 그대로 現 北韓의 政治, 軍事, 經濟, 社會 등 제분야의 實相에 투영되었다. 北韓의 現實이 허위의 歷史에 그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진정한 內面實態를 심층적으로 把握하고 內部矛盾을 알기 위해 그들의 歷史解釋의 특성을 정확히 理解할 必要가 있다. 또한 北韓의 階級史觀, 鬭爭史觀과 허위의 항일혁명전통은 對南赤化革命의 歷史的 必然性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北韓이 우리의 歷史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問題는 民族統一 및 民族正統性의 계승과 불가분의 關係를 갖고 있다.

本論에서는 먼저 北韓 歷史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唯物史觀의 特徵을 살펴보고 北韓이 이 唯物史觀을 어떻게 우리 民族史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유형별로 事例를 分析해 보겠다. 다음에, 北韓이 19세기 후반기의 近代史를 어떻게 歪曲 捏造하고 20세기 전반기의 최근세사를 어떻게 金日成 1個人의 行蹟으로 거짓 描寫하고 있는가하는 실상을 時期別로 把握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歪曲된 北韓의 歷史觀이 北韓 現實에 반영된 측면을 診斷하며 우리 民族의 統一問題

에 끼칠 影響을 評價해 보고자 한다.

2.北韓의 歷史觀

가. 共產主義的 史觀

(1) 敎理的 性格

共產主義 歷史觀인 唯物史觀은 共產主義者들이 인류 역사를 해석하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原則이기 때문에 이의 特徵을 이해함으로써 唯物史觀에 바탕을 둔 北韓이 우리 民族史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唯物史觀 또는 史的 唯物論은 마르크스·엔겔스가 창시한 辨證法的 唯物論을 歷史나 社會의 영역에 適用시킨 社會의 發展 法則에 관한 하나의 학설이다. 마르크스는 모든 사회 현상을 自然法則과 같은 絶對的인 法則을 가지고 說明해 보려고 唯物史觀이란 假說을 세워 이를 法則처럼 適用했다.

唯物史觀은 社會的 生産關係의 發展에 의하여 여러 段階의 社會가 나타나나 最終的으로 共產社會가 도래한다는 歷史의 必然性을 主張하고 있다. 즉 社會發展 5段階說이란 圖式에 의해 원시공동사회는 고대노예사회로, 고대노예사회는 중세봉건사회로, 중세봉건사회는 근대자본주의 사회로, 近代資本主義社會는 共產主義社會로 반드시 發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歷史가 이런 必然的인 趨勢로 發展하기 때문에 인간의 意志에 의해 歷史의 수레바퀴를 다른 方向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은 唯物史觀이란 절대적 法則에 의해 經濟나 社會뿐만 아니라 政治, 文化, 人間의 意識 등 무형적 要素들의 發展까지도 物理學의 原理와 같은 絕對法則에 따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共產國家에서는 唯物史觀的 歷史敎理에 대해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죄악시되어 있다. 이렇게 共產主義者들은 한편으로 科學的인 歷史學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非科學的인 歷史哲學을 構築했다.

(2) 假定의 絕對化

唯物史觀은 다음과 같은 기본 假定을 절대적인 法則으로 간주한다.

첫째, 物質이 우주의 만물, 모든 存在의 본질이며 人間의 意識은 다만 物質의 運動法則에 從屬되는 存在이기 때문에 歷史發展을 추진하는 基盤도 物質이라는 主張이다.

둘째, 經濟가 어떤 다른 領域보다도 歷史 創造의 基本要素라는 믿음의 世界觀이다. 歷史와 社會制度의 發展은 人間의 生存手段인 物質的 財貨, 社會的 富를 어떤 양식으로 生産하느냐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셋째, 歷史를 階級鬭爭의 과정으로 보며 歷史發展을 위한 根本的인 社會改革은 暴力과 實力에 의한 鬭爭에 의해서만 可能하다고 믿는 歷史觀이다. 즉 勞動階級은 階級鬭爭의 歷史 發展의 合法則性에 따라 싸워야 한다는 鬭爭史觀이다.

넷째, 歷史의 주체는 인민대중, 즉 勞動者와 農民이라는 전제를 걸고서 내세우고 社會 發展에서, 특히 共產革命에서 嚴格히 訓練된 職業的 革命家의 指導가 절대적이라는 原理를 신봉하는 歷史觀이다.

(3) 政治的 性格

唯物史觀은 애초에 共產主義 政治 이데올로기를 合理化하려는 의도에서 발상되었다. 共產主義者들은 唯物史觀的 歷史解釋을 통해 그들 共產政治에 대한 必然性, 當爲性, 優越性を 證明하며 그들 共產獨裁權力行使의 명분과 正當性を 立證하려하기 때문에 唯物史觀의 立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拋棄할 수 없는 政治的 性格을 갖는다.

共產國家에서는 현재의 政治的 目標가 過去의 歷史를 해석하고 評價하는 基準이 되어 歷史가 現在로부터 過去로 역류되어 再構成된다. 또한 歷史가 黨의 宣傳煽動(propaganda)의 手段으로 認識되어 共產黨만이 歷史解釋의 權限을 갖는 黨派性を 강하게 나타낸다. 때문에 共產主義에서 歷史認識은 歷史的 必然性的 認識이며 그것에 대한 服從의 認識이다.

나.北韓 歷史觀의 特徵

北韓은 1979년 부터 3年間 唯物史觀에 의해 우리의 歷史를 그들 나름대로 集大成하여 「조선전사」라는 이름으로 發刊했다. 총 33권으로 발간된 朝鮮全史는 北韓이 政治的 立場에서 우리 國史를 歪曲 變質시켜 再構成한 결정판이다.

「조선전사」의 構成 內容을 개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발간 년도	책번호	권수	시 기	사회성격	비 고
原始篇	'79	1	1	50 만년전~ B.C 10세기	공동체사회	조선사람의 인류학적 단일 성 강조
古代篇	'79	2	1	고조선, 부여, 진국	노예제사회	사적소유발생, 계급출현, 국 가형성
中世篇	'79 및 '80	3~12	10	3 국시대~ 이조말	봉 건 사 회	조선민족 형성
近代篇	'80	13~15	3	개항후~ 1920 년대말	자본주의사회	반제·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단계
現代篇	'81 및 '82	16~33	18	1930 년이후	공신주의사회	사회주의제도수립 단계

「조선전사」에서는 그 序文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유구한 5천년의 民族史를 共產主義 政治 이데올로기의 立場에서 歪曲하고 近代史를 金日成 중심으로 捏造했다는 두 가지의 特性을 發見할 수 있다. 「조선전사」의 序文에서는 “金日成의 革命活動의 開始로부터 영광찬란한 길을 걸어온 現時代, 主體時代의 歷史를 體系化했다”면서 金日成이 “우리나라 歷史를 體系化하는 데에서 나서는 크고 작은 問題들을, 즉 科學 理論적으로 提起되는 問題들을 풀어주어 우리 歷史의 앞길을 밝히었다”고 쓰고 있다.

北韓은 唯物史觀의 敎理를 원용하여 5천년의 우리 歷史를 國際共產主義運動의 한 맥락으로, 共產主義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전락시키고 더우기 5천년의 歷史보다도 金日成 한 個人의 가공적 行蹟을 더욱 重視하고 있다.

여기서 北韓이 國史를 서술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몇 가지 特徵

을 指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唯物論의 觀點에서 우리 民族은 原始時代로부터 발생한 唯物思想을 現在까지 연綿히 이어오며 發展시켰다는 점을 浮刻시키고 있다.

둘째, 우리 國史의 時代區分을 임의로 5段階로 圖式化하고 全體 歷史를 바로 暴力鬭爭과 戰爭中心의 歷史로 描寫하여 5천년이 階級鬭爭의 過程이었다는 것을 立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歷史發展의 主體는 오로지 農民 勞動者였다고 主張하면서 上流層이나 양반계급의 業績은 完全히 無視하는 등 支配層 中心의 王朝史를 전적으로 배격하고 被支配層인 民衆 爲主의 歷史로 記述하고 있다. 또한 민족문화유산도 農民과 勞動者들의 人民性, 愛國主義의 발현으로 보고 寫實主義란 尺度를 가지고 社會主義的 內容의 발굴에 注力하기 때문에 上流層과 知識層의 文物, 制度, 事件, 人物에 대해서도 外面하고 있다.

北韓이 歷史解釋의 보편적인 傾向에 따라 人民大衆의 實生活을 중심으로 歷史를 記述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北韓이 農民들의 투쟁, 폭동, 혁명을 역사 발전의 原動力으로 強調하는 歷史 記述의 立場은 그들의 暴力革命論을 合理化시키고 프롤레타리아 革命鬭爭 意識을 鼓吹시키려는 데에 그 政治的 目的이 있다 하겠다.

셋째, 우리 歷史가 대내적 鬭爭과 暴力의 歷史임과 동시에 對外抗爭의 歷史였다고 記述하고 있는 바, 특히 近代以後 美國과 日本에 대한 抗爭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近代의 歐洲와 日本帝國主義의 侵略에 대한 民族鬭爭을 社會主義 勞動運動으로 도색하고 있다. 北韓은 對外抗爭의 歷史記述을 함으로써 民族主體性을 強調하려는 것이 아니라 金日成의 이른바 「抗日鬭爭」과 우리 歷史를 接木시키려는 데에 그 의도가 있다. 또 民

族鬭爭을 社會主義 運動으로 描寫하는 것은 共產黨의 誕生과 活動이 必然的이었다는 論理를 誘導하기 위한 것이다.

네째, 우리의 古代史를 古朝鮮과 高句麗中心으로 서술한 것이다. 그리고 文化 中心地였던 서울을 否定的으로 描寫하고 平壤의 歷史를 찬양하면서 平壤의 正統性을 強調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眞實을 歪曲하고 虛構의 歷史를 記述하다 보니까 北韓에서 발간된 歷史 書籍은 그 內容뿐만 아니라 文章도 통속적인 文學作品과 같이 과도한 형용사와 수식어를 使用하여 흥미진진하게 꾸미려 하고 있다.

다. 北韓 歷史觀의 變遷

北韓에서 1956년 「조선통사(상권)」를 발간하여 國史의 독자적 變用을 試圖하며 1958년 「조선민족해방 투쟁사」에서 金日成 中心으로 近代史를 再構成할 때까지는 國史觀의 공백 상태인 國史의 不在時期였다. 北韓에서의 歷史研究를 보면 해방후 부터 6.25 動亂까지의 時期는 唯物史觀에 대한 理解도 初步的이었을 뿐만 아니라 蘇聯共產黨의 黨史를 그대로 번역하여 역사교재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民族의 과거 歷史를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로 代置시켰다. 이 시기는 교조적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基準으로 우리 民族史를 비판하는 등 민족전통과 문화적 자기 부정의 단계였다.

다음 1956년부터 1962년까지는 國史觀의 형성기로 기간중의 역사 의식은 사회발전 5 단계론을 원용한 經濟 決定論이 주류를 이뤘다. 이 때에 3國統一을 朝鮮準民族의 형성으로 描寫하는 등 민족적 특수성이 삽입되었고 다른 편으로 近代史의 중요성을 認識하고 開港이

후를 중점적으로 研究하고 敎習하였다. 이 시기에는 學說 論爭도 전개되었는데 주요 쟁점은 國史上 奴隸制度의 유무문제와 사회발전 5 단계설에 따른 國史의 시대구분 문제였다.

1960년대 중반기부터 北韓의 基本史觀이 고정되었는데, 근대 역사의 주체가 黨主體에서 金日成 1人 主體로 완전 轉換되어 金日成과 現代史를 同一人格視하며 조작된 歷史위에 革命傳統을 세우려고 시도했다.

北韓은 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金日成시대 이전의 역사와 金日成 출생 이후 시대의 歷史를 구분하여 별도로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金日成 이전의 歷史는 주로 사회과학원 산하의 歷史 研究所에서 중점 연구를 하고 勞動黨 中央委員會 산하의 黨歷史 研究所는 金日成 個人 行蹟을 날조, 미화하는 任務를 주로 맡고 있다.

解放以後 北韓에서 「로동당 출판사」나 「사회과학 출판사」의 명의로 발간된 역사책 가운데 입수된 資料는 다음과 같다.

<國史分野 發刊物>

책 명	발행년도	저 자(발행처)	비 고
조선력사	1955	김석형(학우서방)	북한 교육성 비준
조선사개요	1957	김석형, 양형섭등 (국립출판사)	김일성종합대학교 강좌용
조선통사	1958	김석형, 이나영 등 8명 (과학원 력사연구소)	상, 하 2권
조선력사	1964	(학우서방)	고급학교 2년용
력사사전	1971	(사회과학출판사)	상, 하권
조선통사	1977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3국시대를 고구려 중심으로 서술
조선전사	1979~82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김일성시대를 미화

* 고고학, 고구려사 등 歷史의 특수한 부분만 취급한 자료는 제외

< 近代史 關係 發刊物 >

책 명	발행년도	저 자 (발행처)	비 고
우리의 태양	1946	조선예술총동맹	○근대사 날조의 첫시도
영웅 김일성장군	1946	韓 雪 野	○김일성 우상화 작품 ○한설야는 1962년 숙청
조선민족해방투쟁사	1949	白南雲, 崔昌益	○ 김일성대학교 과외특강내용 ○ 최창익은 1958년도 숙청
김일성장군략전	1952	로동신문특집 (4.10)	○김일성 생일관계특집
조선민족해방투쟁사	1958	李 羅 英	○ 49년도 책자를 근본적으로 개작한 날조문건
조선근대혁명운동사	1961	(과학원 력사 연구소)	○ 58년도 이나영의 날조를 공식화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1968	白 峯	○ 최초의 김일성가계 우상화 문건 ○ 상, 중, 하 3권
항일빨치산 참가 자들의 회상기		(로동당 력사 연구소)	○ 수기형식의 가공적 내용 수록 ○ 수차 개작 및 보완

라. 北韓의 國史 해석 사례

(1) 唯物思想

北韓은 고대로 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民族의 근본사상은 유물사상이 그 주류를 이뤘으며 이런 思想에 대해 주관적 觀念論과 객관적 觀念論이 대립되어 온 것처럼 主張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民族精神의 바탕을 이뤘던 도덕 윤리와 종교들을 觀念的 反動思想이었다고 일축하고 있다. 佛敎, 儒敎, 道敎 등이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支配했고 또 民族의 發展에 크게 寄與했던 점은 하나도 인정치 않고 支配層의 統治制度를 유지하고 擄取階級의 利益을 위해만 들어져서 우리 民族에게 나쁜 害毒만 끼쳤다고 片面일률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北韓이 우리 民族思想을 唯物思想으로 간주하고 있는 內容을 각 시대별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時 代	唯 物 思 想	反 動 思 想
原始時代	○物質에 대한 思想이 싹터 물질을 중심으로 思考	
古 朝 鮮	○소박한 유물론철학인 陰陽五行思想 出現	祭天思想이 나와 人民들의 계급 의식 마비
三國時代	○高句麗의 음양오행사상은 농민이익 대변 ○新羅의 지배적 사상인 風流思想은 유물적 요소와 애국주의 정신 내포	○佛敎는 착취계급에 대한 人民의 鬪爭을 <악>이고 착취당하는 고통을 참는 것을 <선>이라고 설교 ○律宗의 世俗五戒는 원수도 죽이지 말라는 비자주적 사상
高 麗	○李奎報는 氣一元論, 吉再는 객관적 관념론을 주장, 후기에는 無神論도 발생	○性理學은 봉건지배와 복종관계를 절대화

時 代	唯 物 思 想	反 動 思 想
李 朝	<ul style="list-style-type: none"> ○鄭道傳은 유물론적 辨證法을 주장하고 金時習과 徐敬德은 유물론적 主氣說을 主張 ○李栗谷의 객관적 觀念論은 유물적 實學의 형성배경 ○實學者들은 변증법적 요소가 내포된 유물론적 思想과 無神論的 立場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封建的 支配關係를 유지키 위해 性理學의 주관적 觀念論이 發展했는데 李退溪는 그 대표적 인물

北韓은 공동사회인 原始時代에는 反動思想이 없었으나 國家의 出現과 함께 反動思想이 생긴 것처럼 말하면서 高句麗의 반동사상에 대해서는 言及치 않고 있으나 新羅와 百濟의 반동사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즉 우리 歷史에서 唯物論은 古代에는 소박한 物質中心의 思想이 대두되고 3國時代와 高麗時代에 唯物論的 哲學이 체계화되고 李朝時代에는 그것이 唯物論的 辨證法으로 더욱 발전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北韓은 古代로부터 유물사상을 가진 모든 歷史的 人物들은 계급적 및 시대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이러 저러한 면에서 革命思想으로 發展시키지 못하고 당시 壓迫者들을 反對하는 農民들의 鬪爭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특히 實學思想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階級的 制限에서 벗어나지 못해 社會革命思想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지

만 北韓勞動黨은 그 思想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동시에 階級적 制限性을 벗어 났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先祖들이 것처럼 철저한 唯物思想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아니었다. 우리 先祖들은 사람의 魂魄을 인정하여 죽은 조상들에게 祭祀를 지냈다. 또 古代로 부터 各種의 神맞이 굿을 하여 이에서 많은 民俗놀이로 전래되고 있다.

심지어 우리 선조들은 草木蟲魚, 地水火風 등 세상의 모든 存在物은 魂이나 精靈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物活思想(animism)도 갖고 있었는데도 北韓의 歷史記述에서는 이러한 정신적 傳統을 아예 무시하고 부정하고 있다.

(2) 階級性

北韓은 歷史發展의 主體가 農民, 勞動者라고 하여 被支配層 위주로 歷史를 서술하였다. 우리 歷史를 說明함에 있어서 우리 民族을 支配層과 被支配層, 혹은 搾取階級과 被搾取階級으로 兩分시키어 雙方間의 葛藤, 對立, 鬭爭만 浮刻시키고 있다.

즉 北韓의 歷史冊은 “原始共同體 社會는 富와 貧이 없는 無階級社會였으나 種族간의 戰爭으로 古代 國家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최초의 階級分裂이 있었다. 이때부터 포로와 가난한 자를 奴隸로 부리는 奴隸所有者와 奴隸의 兩階級으로 分離되었다”고 쓰고 있으며, 또는 “세나라 時期에 新羅의 統一은 外敵을 반대하는 戰爭일 뿐만 아니라 階級鬭爭이기도 하였던 통일전쟁 行程이었다. 이 戰爭에서 많은 노비들이 解放되었다” 혹은 “高麗時代의 금속화폐 제조는 封建 搾取階級이 농민들의 生産品을 헐값에 빼앗기 위한 것이었다”고 強調하고 있다.

北韓은 古代 로마帝國時代에 있었던 事實, 혹은 近代 구라파의 産業革命時에 발생했던 事件과 같은 것이 마치 우리의 옛 歷史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같은 階級鬭爭 史觀에 입각해서 支配層과 被支配層의 2원적 歷史要素에서 하나의 要素만을 지나치게 強調함으로써 北韓은 歷史歪曲의 과오를 불가피하게 범하고 있다.

(3) 暴力鬭爭의 歷史

「조선전사」의 序文에도 金日成의 敎示를 인용하여 “인류의 歷史는 아직 어떤 統治階級이 자기의 支配權을 순순히 양보한 일을 알지 못하며 어떤 反動階級이 反革命的 暴力을 쓰지 않고 공손히 政權에서 물러선 실례를 알지 못한다. (김일성 저작선집, 5권) 金日成이 정식화한 이 古典的 命題는 革命 鬭爭에서 暴力 使用의 불가피성의 보편적 진리를 밝혀 주었다”고 쓴 것과 같이 暴力鬭爭을 신봉하는 그들의 立場을 잘 알 수 있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歷史적으로 작은 사건마저도 그것을 戰爭, 暴動, 鬭爭등으로 描寫하고 있는데 심지어 “9세기 신라에서 농민폭동”까지 있었다며 “9세기의 농민들은 아직 封建制度의 不合理性을 인식 못하고 封建制度를 반대하는 구호를 제기치 못했다”고 記述하고 있다.

특히 高麗時代의 妙淸의 亂, 萬積의 亂, 鄭知常의 亂과 李朝時代에 있었던 李施愛의 亂을 함경도 농민전쟁으로, 洪景來의 亂을 평안도 농민전쟁이라 불러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 15세기와 16세기의 流民 武裝團들의 鬭爭중 대표적인 것으로 洪吉童의 鬭爭(1498년), 林巨正의 鬭爭(1559년) 등이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북한 국사 서술에서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暴力을 신봉하

며 그들 體制의 本質이 暴力的이란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 民族은 北韓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 투쟁, 폭동을 일삼아 온 民族은 결코 아닌 것이다. 우리 민족사에서 투쟁과 폭력의 기록을 찾는다면 그것은 外侵에 대한 항쟁정도였다. 그런데도 北韓이 우리 國史를 暴力的 階級鬭爭의 과정으로 描寫하는 것은 民族史에서 對南暴力革命的 정당성 論據를 찾으려 한다는 점을 北韓 스스로 분명히 하고 있다.

(4) 高句麗 중심의 역사서술

北韓은 현재 古朝鮮과 高句麗에 관한 歷史를 美化하며 平壤이 이들 古代 國家의 수도였다는 점을 내세워 平壤의 正統性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開城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해석을 하여 北韓共產集團이 高麗의 傳統도 이어 받았다는 점을 은연중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에 대해서는 李氏朝鮮의 사색당파와 부패, 분열주의자들이 모인 소굴로 描寫하고 있다.

1960年代 초반까지만 해도 北韓은 3國時代에 新羅가 統一을 위해 唐을 끌어 들인 행위를 비판치 않고 찬양했다. 그러나 1960年代 후반부터는 "6세기에 백제와 신라의 統治階級들은 領土의 확장을 위하여 中國大陸의 勢力을 끌어들이려고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았지만 고구려 통치계급들은 자기들의 주견에 따라 行動하였고 비굴하게 外國의 侵略 勢力까지 끌어들이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新羅의 聯唐政策을 비난하고 있다.

3. 北韓의 近代史 歪曲 및 捏造

가. 近代史 記述의 特徵

北韓은 1960年代까지만 해도 近代史의 時代區分을 1860년대부터 1945년 解放당시 까지로 보았으나 現在는 1860年代부터 1920年代末까지로 보고 그 이후를 現代史로 取扱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특히 近代史 이후의 歷史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金日成이 國史를 體系化하는데 指針을 주어 발간했다는 「조선전사」 33권중 2/3가 되는 스물 한권이 1860년대이후의 近代 혹은 現代史인데, 특히 열여덟권은 金日成만 攄급한 現代史이다. 그리고 民族解放鬪爭이나 近代革命鬪爭의 側面에서 인식한 近代史에 관한 文獻이 歷史書籍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近代史 이외에 어떤 특정한 時代나 分野를 獨立시켜 攄급한 단행본은 高句麗史 정도이다.

北韓의 近代史에서는 열강의 勢力이 밀려들어 옴에 따른 民族的 自覺과 民族主義 사상이 성숙된 事實이라든가 日帝時代에 國內外에서 전개된 民族進영의 끊임없는 光復運動 事實은 完全히 도외시하고 있다.

北韓의 近代史는 根本적으로 金日成을 주인공으로 하여 서술하고 부수적으로 共產主義 運動을 攄급하고 있다. 北韓의 近代史는 진정한 우리 民族史의 맥락에서 전적으로 이탈하여 金日成과 그 家系를 우상화시키기 위한 手段으로 전략했다. 이는 물론 金日成의 조작된 抗

日革命傳統을 合理化하려는 데에서 연유된다.

北韓이 발간한 近代史 책자에는 엄연히 存在했던 歷史的 事實과 事件들을 도외시하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허무맹랑한 事件들을 조작함으로써 虛構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北韓 近代史가 記述하고 있는 金日成의 행적은 다른 人物들에 의해 展開되었던 活動이나 業績을 모두 도용하여 金日成 한 個人에 의해 이뤄진 사실로 造作하고 아니면 조그만 事件을 크게 과장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정반대로 서술하는 방법으로 가공의 경력을 捏造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歪曲이나 조작은 金日成 한 개인에게만 局限되지 않고 그의 全 家系와 側近者에게 까지 擴大하고 있다.

北韓은 開港以後 日帝의 韓國 강점까지의 期間은 金日成 出現의 必然性, 共産黨 組織의 불가피성이 축적되어온 期間이었다는 점을 浮刻시키는데 注力하고 있다. 즉 우리 近代 歷史에서 모든 改革運動이나 각종 反日運動 등은 反封建 鬪爭의 性格을 갖고 있었으나 이같은 努力들이 失敗한 原因은 革命的 鬪爭 綱領이 없었고, 革命的 參謀部가 없었고, 革命階級의 領導者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片面일률적으로 說明하고 있다.

金日成의 行蹟에 관한 敘述은 根據資料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 通例이며 根據가 제시된 것도 最初에 捏造된 資料를 내세운 것이거나 金日成의 교시를 引用한 것이다.

나. 近代史 歪曲事例

金日成과 直接 關聯되는 事件이나 內容을 除外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近代史의 代表的인 事件을 몇 가지만 골라서 北韓이 어떻게 記述하고 있는가를 提示함으로써 北韓이 近代史를 解釋하고 있는 論點을 把握해 보겠다.

< 3.1 運動 >

○ 3.1 人民蜂起

區 分	1970年代	1980年代
經 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宗教界出身 33人이 朝鮮民族의 代表로 自處하면서…… 獨立宣言書를 發表하고 平和的 示威準備 ○ 革命的 政黨이 없는 條件下에서 全人民的 反日蜂起가 暴動化 ○ 3月5日에 學生들과 서울市民들은 붉은 깃발을 들고 暴動에 蜂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 蜂起는 平壤에서 大衆的인 獨立萬歲示威鬪爭을 첫 烽火로 하여 먼저 타 올랐음. ○ 平壤에서 미리 짜놓은 計劃에 따라 3月1日 12時 鐘소리를 신호로 창대재에 있던 崇德女學校에 모여들어 1時에 獨立宣言文 朗讀 ○ 民族主義者들은 獨立宣言式을 塔골公園에서 할 것을 파기
原 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10月革命이 反日大衆的 鬪爭에로 고무 ○ 金亨稷이 뿌린 反日愛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亨稷이 革命的 씨앗을 뿌리고 反日獨立運動 據點으로 만든 平壤崇實學

區 分	1970 年代	1980 年代
	思想과 革命의 불씨는 3.1 民衆蜂起로 各地에 타 번 짐	校에 의해 主動
結 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朝鮮人民은 피의 敎訓을 얻음 ○ 人民들은 祖國의 自由와 獨立은 請願이나 平和的 示威方法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革命的 鬪爭의 方法으로서만 爭取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 蜂起를 契機로 부르조아 民族運動의 時期는 終結되고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旗幟밑에 勞動階級을 先頭로 한 朝鮮人民의 民族解放鬪爭은 새 段階로 突入
失 敗 原 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革命的 指導者가 없었음 ○ 指導部에 부르조아 民族主義者가 앉게 되었음 ○ 國際革命力量의 積極的 支援을 얻을 수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運動을 領導할 革命的 階級, 革命的 黨이 없는데 있었음 ○ 부르조아 民族主義者들의 無抵抗主義와 政治的 投機行爲 때문이었음

<東學革命(1894.2)>

- 1894年(甲午) 農民戰爭

區 分	記 述 內 容
經 過	○ 農民軍을 編成하여 全國的 範圍에서 農民戰爭으로 擴大되었으며, 公文書를 燒却하고 무고한 罪人을 釋放
原 因	○ 南韓에서 土地를 中心한 階級的 矛盾對立의 深化

區 分	記 述 內 容
失 敗 原 因	○ 새로운 革命的 階級の 確固한 領導가 없었고, 革命的 綱領이 없었으며 革命的 鬪爭方法을 몰랐으며 農民軍 指揮部 內部에서의 意見 不一致 때문이었음
評 價	○ 비록 많은 部門에서 東學이라는 宗教的 外皮를 쓰고 있었으나 朝鮮 人民의 崇高한 愛國主義와 革命傳統을 높이 示威한 빛나는 革命運動이었음

<甲申政變(1884.10)>

- 1884年(甲申) 부르조아革命

區 分	記 述 內 容
經 過	○ 開化派는 守舊派에 대한 쿠데타 斷行 ○ 日本은 開化派를 利用하여 自己勢力을 부식하려고 努 力
結 果	○ 朝鮮 人民들로 하여금 自主的인 民族精神과 近代的인 新文化 啓蒙運動을 抬頭하게 한 先驅的 役割
失 敗 原 因	○ 社會革命力量이 微弱했고 開化派가 人民大衆의 革命力 量에 依據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겁냈으며, 日 本 侵略者들에 대해 잘못 認識하고 있었기 때문임

<壬午軍亂(1882.6)>

- 1882 年の 軍人暴動: 壬午軍變

區 分	記 述 內 容
經 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軍인들이 武器庫를 占領하고 악질군관을 處斷 ○ 捕盜廳, 義禁府 등을 襲擊하여 무고한 罪囚釋放 ○ 倉庫를 해쳐 軍人들과 貧民들에게 쌀을 나누어 줌.
原 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別騎軍에 대한 特別待遇 ○ 13 個月 밀린 俸米中 모래, 겨가 切半인 1 個月分 俸米支給
結 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院君의 再執政, 暴動軍인과 貧民들을 苛酷하게 討伐 ○ 民族的 階級的 覺醒을 一層 提高 ○ 淸·日 兩國勢力의 朝鮮侵略 強化
特 記 事 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封建統治階級の 代表이며 大土地 所有者였던 大院君이 軍人들과 都市 貧民들의 절실한 要求를 解決하여 줄리는 만무 ○ 그는 自己中心의 封建統治機構를 再編成하기 위해 급급, 暴動軍人들에 대해서는 適當한 時期에 가서 嚴酷한 處斷을 내릴 것을 計劃함.

<6.10 萬歲運動(1926.6)>

- 6.10 萬歲 示威鬪爭

區 分	記 述 內 容
經 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純宗의 상여가 파조교에 이르자 群衆속으로부터 勞動者, 青年學生들의 先唱으로 朝鮮獨立萬歲의 우렁찬 합성이 퍼져 나옴

區 分	記 述 內 容
	○ 各界各層의 朝鮮 人民들은 日帝에 대한 격분을 참을 수 없어 罷業, 撤市, 休業, 同盟休學을 일으키고 植民地 統治者들을 襲擊
原 因	○ 共產黨 創建에 의한 反日大衆運動의 成長, 朝鮮共產黨 指導下의 示威鬪爭
失 敗 原 因	○ 朝鮮共產黨의 宗派分子들의 派爭으로 인하여 組織的 基盤을 構築하지 못했으므로 失敗
特 記 事 項	○ “ 共產黨의 創建은 勞動運動과 農民運動, 民族解放運動의 發展을 추동하였다. 共產主義者들의 指導밑에…… 日帝와 地主, 資本家들을 反對하는 勞動者, 農民들의 大衆的 鬪爭은 더욱 擴大되었다 ” (金日成選集, 4 卷, p. 282) 를 그대로 引用

北韓은 日帝植民地時代 이전의 近代史의 事件을 다루는 데에도 반드시 金日成의 敎示를 引用하여 革命性, 階級性을 따져 그 行爲의 옳고 그름을 評價하고 있다. 그리고 日帝時에 展開된 民族主義에 立脚한 獨立運動들은 初期에는 그나마 批判的으로 다루었으나 1960 年代 이후에는 전혀 言及이 없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는 態度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反封建鬪爭이나 階級鬪爭의 일환으로 묘사하고 있는 歷史事件이 革命을 指導할 수 있는 領導者와 指導勢力이 없어서 성공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金日成의 出現이 고대되었다는 인상을 주려는 데 近代史 敘述의 目標을 두고 있다.

다. 金日成行蹟 捏造事例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金日成이 우리 民族 5千年 歷史에 최초로 떠오른 위대한 太陽으로서, 그 이전의 歷史는 暗黑의 歷史였다고 說明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金日成에 대해 超自然的 側面을 강조키 위해 그의 先祖까지 거슬러 올라가 革命傳統이란 것을 捏造하고 있다. 金日成의 家系를 革命的 家庭으로 날조키 위해 그의 曾祖父인 金膺禹의 行蹟부터 조작하고 있다.

金膺禹는 당시에 大同江 근처에 살았던 노인이란 理由밖에 없는데 우리 近代史의 主要事件인 「서면」號事件(1866.7)과 결부시켜 偉大性을 나타내려는 허무맹랑한 捏造를 서슴지 않고 있다. 北韓에서 나온 資料를 보더라도 金膺禹는 당시에 李平澤이라는 사람의 先山에서 묘지기 노릇을 했던 人物인데도 그를 「제네랄 서면」號를 擊沈시킨 主人公으로 둔갑시켜 歷史를 造作하고 있다. 이 捏造 事實은 1968年 3卷으로 發刊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그 이전의 資料에는 平壤 부근의 住民들이 평양감영의 軍人들과 合勢해서 朴春權의 指導下에 “서면”號에 대해 決定的 攻撃을 가하였다고만 記錄하고 있지 金膺禹에 대한 言及은 전혀 없었다.

원래 「제네랄 서면」號는 1866年 大同江에 들어와 通商을 要求하며 무고한 住民을 殺傷하고 官軍을 납치했다. 事態가 惡化되자 平安監司 朴珪壽는 「서면」號를 불태워 버리기로 결심하고 火船에 의한 「서면」號 연소작전을 展開하여 沈沒시키고 말았다.

그런데도, 金膺禹가 「서면」호와의 鬪爭을 위해 萬景臺와 周邊 住民을 動員하여 指揮했으며 “歷史上 처음으로 불배를 띄워 보내는 火攻戰術을 쓰는 창발적인 戰法을 발기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다음 漢藥材 密賣商을 하던 金日成의 父인 金亨稷도 抗日運動을 벌여온 위대한 指導者로 造作하였다. 北韓에서 金亨稷의 經歷을 捏造해 온 過程을 보면 다음과 같다.

< 金亨稷 經歷造作過程 >

年 代	內 容	出 處	備 考
40 年代	○ 전혀 言及 없음		
50 年代	○ 故鄉에서 3.1 運動 參加 ○ 1919 年 平壤監獄 投獄, 28 年 36 歲로 死亡	김일성장군락 전 (1952)	첫 造作
60 年代	○ 3.1 運動때 증강진 등 韓滿國 境서 獨立運動 指導 ○ 1916 年 平壤監獄 投獄, 26 年 32 歲로 死亡	조선근대혁명 운동사 (1961)	1952 年 造作을 再捏造
70 年代	○ 1917 年 朝鮮國民會 組織 ○ 共產主義運動의 先驅者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1969) 및 력사사건(1971)	民族的 成分 排除
80 年代	○ 1917 年 朝鮮國民會 組織 ○ 社會主義 思想을 제일 먼저 導入	조선전사 (1980)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主張하는 1917 年 金亨稷에 의해 組織된 소위 朝鮮國民會란 어느 歷史資料나 文獻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日帝時代에 國民會와 비슷한 이름의 小規模 愛國團體는 많이 있었는데 金亨稷의 이름과 關聯된 團體는 하나도 없었다.

金日成의 家系를 偶像化한 結果, 曾祖父 金膺禹는 「서먼」號 擊沈

3. 北韓의 近代史 歪曲 및 捏造

의 主役, 祖父 金甫鉉은 獨立愛國志士, 父 金亨稷은 共產主義運動의 先驅者, 母 康盤石은 反日 女性指導者 혹은 「조선의 어머니」로 묘사하기에 이르렀고 동생 金喆柱도 獨立運動을 하다 死亡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어 前妻 金晶淑(金正日 生母)도 抗日 빨치산을 指導한 英雄으로 造作하고 金正日도 6.25 動亂時 美帝를 反對鬪爭하는 少年團을 組織했다고 과거의 行蹟을 造作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金日成은 그 先代들이 우리나라의 獨立運動을 指導하고 共產主義運動을 전개한 傳統을 이어받아 革命傳統을 完成했다는 것이다. 現在는 이 革命傳統이 代를 이어갈 수 있기 위해 그의 아들 金正日이 北韓 共產政權을 인계받아야 한다는 論理를 展開하고 있다.

北韓의 現 獨裁者 金日成은 각종 資料에 나타나고 있는 解放前의 金日成은 물론 아니다.

歷史 記錄上 金日成으로 登場한 人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本名	出生年度	出生地	活動內譯	備考
金昌希	1888	함남 단천	○ 1907年以後 白頭山에서 義兵將으로 遊擊活動 展開	1926年 滿洲에서 死亡
金光瑞	1888	함남 북청	○ 1919年以後 滿洲에서 抗日鬪爭 展開	1909年 日本陸士 卒業
金成柱	1901	함남	○ 1934年부터 滿洲에서 中共黨所屬으로 抗日鬪爭, 보천보 襲擊	모스크바 共產大學 卒業, 1937年 11月 死亡
金一星	1907		○ 1938年부터 中共黨所屬의 遊擊隊에서 活動	1944年 滿洲에서 死亡
金聖柱	1912	평남대동군		北韓의 現 金日成

北韓의 資料들은 現 金日成이 平南 大同郡 용산면 하리 칠골에서 태어났다고 하다가 대동군 古坪面 남리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의 本名이 金聖柱라는 것은 朝鮮民族解放鬪爭史에서 밝히고 있으며 아명은 「증손」이라 한다.

그는 어려서 父 金亨稷을 따라 滿洲 東北部로 갔다가 곧 고향으로 돌아와 외가에서 私立學校인 彰德學校를 다녔다. 彰德學校를 잠시 다니다 다시 滿洲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小學校를 卒業했다. 그후 華成義塾과 吉林에 있는 毓文中學에 다녔다고 한다. 父 金亨稷이 죽은 후, 滿洲에서 中國人 및 韓國人 匪賊集團의 간첩부름을 해주기 시작했다. 1929年 17歲때에는 高麗共產青年同盟 會員을 쫓아 다니며 左翼씨클의 모임에 出入하다가 先輩들이 잡히는 바람에 吉林으로 도망가 高유수 라는 곳에서 李鍾洛이란 사람 밑에서 사동으로 은신해 있기도 했다.

1930년에는 撫松一帶의 匪賊團에 가담하여 活動했으며 1931年 10月에는 中國共產黨에 入黨한 것으로 알려졌다. 1933年以後는 行방불명이 되었는데 일부 主張에 따르면 中國共產黨 所屬의 東北 抗日聯軍이란 마적단에 소속된 部隊員으로 따라다녔다는 것이다(이러한 사실은 金日成의 친동생 金英柱의 日警에 의한 逮捕로 確認).

그러나 1941年初에 中國共產黨의 武裝隊員들이 日本 關東軍의 대소탕전에 못이겨 蘇聯땅으로 도망갈 때 金日成도 蘇聯의 연해주로 가서 蘇聯軍 情報要員으로 訓練받은 다음 蘇聯軍 將校가 되었으며, 1945年 解放되자 蘇聯 軍용차에 실려 入北했다.

그런데 北韓에서는 歷史冊이 새로 나올 때마다 金日成에 관한 이야기가 달라진다. 解放直後の 初期 資料에는 간간히 사실대로 記述된 것이 있었으나, 1970年以後는 完全히 造作에 의해 虛構的 活動

과 事件들로 金日成에 관한 歷史를 만들고 있다. 金日成의 行蹟에 관한 捏造過程의 實例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金日成의 少年時節 >

時期 區分	1950 年代	1960 年代	1970 年代
滿洲移住 時 期	○ 1926 年 中國東 北部로 移住 (滿 14 歲)	○ 1919 年 장백현 팔도구로 移住 (滿 7 歲)	○ 1919 年 장백현 팔도구로 移住 (滿 7 歲)
萬 景 臺 歸還時期		○ 1923 年 1 月 13 日 팔도구에서 歸 還	○ 1923 年 3 月 16 日 팔도구에서 萬 景臺로 出發 * 25 年 2 月 再次 팔도구로 出發
中 學 校 學 業	○ 1926 年 吉林 毓文中學 入學	○ 1926 年 華成義 塾 入學 및 中退	○ 1926 年 華成義 塾 中退
吉林移住	○ 1927 年初 어 머니 康盤石을 찾아 吉林으로 出發	○ 1927 年初 어 머니 康盤石을 찾 아 吉林으로 出 發	○ 1927 年 吉林으 로 革命活動舞臺 음김.

< 金日成의 共產黨活動 >

時期 區分	1950 年代	1960 年代	1970 年代
共產青年 同 盟	○ 1926 年 共青 加入 ○ 1929 年 共產	○ 1926 年 새날 朝 鮮同盟 組織 (撫松)	○ 1926 年 새날 朝 鮮同盟과 打倒帝 國主義同盟 結成

時期 區分	1950年代	1960年代	1970年代
	青年同盟 東滿 特別區秘書	○ 1929年 백산青 年同盟代表로 活 動	○ 1927年 여름 打 倒帝國主義同盟을 反帝青年同盟으로 改稱
共 產 黨	○ 1931年 共產 黨 入黨	○ 共產黨 入黨內容 削除	○ 1930 共產革命 組織 結成 (主體思想創始)
評 價	* 中國共產黨 所 屬이었음을 間 接적으로 시사	* 中國共產黨員이었 다는 인상불식	* 獨立的인 共產主 義組織 結成을 과 시

< 遊擊隊 組織 >

時 期	組 織 內 容	備 考
40年代	東滿人民反日遊擊隊組織 → 東北抗日聯軍2軍6師長 (1931) (1936)	1946年 資 料
50年代	人民武裝遊擊隊組織 → 朝鮮人民革命軍組織 (1931) (1934)	1952年 資 料
60年代	抗日遊擊隊 組織 → 朝鮮人民革命軍 組織 (1932) (1934)	1961年 資 料
70年代	朝鮮革命軍組織 → 抗日遊擊隊創建 → 朝鮮人民革命軍 (1930) (1932) 으로改稱(1936)	1968年 資 料
80年代	抗日遊擊隊組織 → 朝鮮人民革命軍組織 (1930) (1932)	

金日成이 組織 展開했다는 遊擊隊의 名稱도 구구각색으로 人民遊擊隊, 人民武裝遊擊隊, 反日遊擊隊, 反日人民遊擊隊, 抗日遊擊隊 등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革命軍의 名稱도 人民革命軍, 朝鮮革命軍, 朝鮮人民革命軍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遊擊隊와 革命軍의 組織들이 같은 組織인데 편이상 여러가지 名稱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 歷史的 事實을 捏造하다보니 複雜하게 된 것이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武裝活動의 時期를 앞당기고 웅장한 드라마를 꾸미려는 創作的 상상력을 풍부히 구사하게 되자 점점 眞實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지며 대담해져서 더욱 후안무치하게 捏造가 이뤄졌다.

그래서 現在는 遊擊根據地로서 公開的인 解放地區形態와 非公開的인 秘密根據地가, 혹은 完全根據地와 臨時根據地가 있었는데 이런 곳에 人民政府가 樹立되었었다고 捏造하고 있다. 이때의 政權機關의 性格에 대해서 北韓의 近代史 文獻은 “이 시기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혁명 단계인 만큼 해방지구내 정권은 소비에트정부가 아닌 노동동맹에 기초한 반일 애국 역량의 통일전선에 토대한 인민혁명정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人民革命 政府가 實施한 分野別 政策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

<소위 解放地區內的 人民革命政府政策>

分 野	描 寫 內 容	備 考
政 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選舉權과 被選舉權 賦與 ○ 民主的 自由와 平等權 保障(男女平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이 巡 廻演說
軍 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兵器工場에서 연길폭탄과 각종 彈藥 武器 生産 ○ 軍政學習을 組織하여 遊擊戰術 研究 	

經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親日地主의 土地를 沒收하여 農民들에게 無償 分여하는 土地改革 實施 ○ 日本人과 매국노의 主要産業을 沒收하여 人民所有로 轉換 	※4,800 명을 나 뉘 주었더니 어 떤 노인은 너 무 기뻐 달밤 에 나가 자기땅 을 만져 보았다.
社 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時間勞動制, 無料義務教育制, 無償治療制 實施 	
文 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出版活動이 활발하여 定期刊行物만 해도 500 餘種 ○ 隨時로 藝術作品 公演 	

金日成은 그의 抗日鬪爭의 經歷만을 造作한 것이 아니라 각종 出版物을 통해 抗日武裝鬪爭의 成果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맹랑한 조작을 하고 있나를 알 수 있다. 즉 金日成의 휘하에는 1,000 여명의 隊員이 있었다는 것이며 10 年間에 걸쳐 막강한 日本軍과 總 10 만여회의 戰鬪를 하였는데 매 戰鬪마다 한번도 敗한 일이 없이 모두 勝利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日本軍 6 萬名을 殺傷하고 포로도 수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며 노획한 武器도 수십만 점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解放後, 金日成은 그 많은 日本軍 포로는 다 어떻게 했으며 그 많은 武器는 어디에 두었다는 것인가?

金日成이 1931 年부터 1940 年까지 10 만여회의 戰鬪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1 年에 1 萬回의 戰鬪를 했다는 것이어서 하루에 27 回의 戰鬪를 했다는 計算이 나온다. 이러한 造作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으며 그들의 무작정인 捏造가 얼마나 非合理的이고 非科學的인가를 立證시켜 주고 있다.

4. 結 論

南北의 分斷은 한 民族이 단순히 둘로 나뉘어 살고 있다는 意味以外에도 불행하게도 우리 겨레가 함께 脈을 이어온 民族의 참다운 歷史가 계속되느냐 끊기느냐 하는 問題와 결부되어 있다. 分斷된 民族의 統一에서 共通點을 찾는다면 民族史的 正統性은 반드시 이어져 가야 한다는 歷史的 必然性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民族史는 民族 統一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北韓에서는 階級史觀에 의해 完全히 政治的 目的에 따라 우리 民族의 歷史를 歪曲하고 造作했다. 北韓에는 實證史學이니 民族史學 등의 用語 자체가 없다. 어떤 科學的 根據나 뒷받침할 만한 資料도 없이 다만 金日成의 초인적 活動을 正當化시키는 結論을 도출키 위해 歷史를 歪曲 捏造하고 虛構로 革命傳統을 만들어 南北韓 間의 正統性 對決에 도전해 오고 있다.

北韓이 國史를 歪曲, 捏造한 特性을 보면 金日成의 欺瞞的 성품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는 國史를 再構成하고 허위로 꾸밈으로써 자신의 1人獨裁政權 維持, 父子世襲體制를 合理化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革命傳統을 내세워 北韓共產政權의 正統性 繼承名分을 造作하여 全 韓半島의 共產化 統一의 當爲性을 설교하고 있다.

北韓은 우리 民族의 原始史에서부터 現代史에 이르기까지 全 歷史를 歪曲 및 造作하여 그런 歷史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自己催眠에 빠져 부단한 鬭爭과 革命意識을 갖도록 하고 金日成을 위해 살도록 誘導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北韓의 各級學校와 成人의 政治教育에서는 날조된 金日成 一家의 行蹟을 암송시켜 오도된 歷史觀을

전파시키고 있다. 또한 모든 靑少年들에게 金日成의 어린시절을 따라 배우게 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1923年1月 金日成이 11세때 소위 「조선의 것을 배우기」위해 中國 東北部의 장백현 팔도구에서 萬景臺까지 걸어왔다는 「배움의 천리길」路程, 혹은 1925年2月 소위 「朝鮮을 獨立시킨다」고 다시 萬景臺에서 팔도구까지 걸어서 간 「광복의 천리길」을 體得시켜야 한다고 各級學校 學生들을 集團의으로 천리길 행군을 시키고 있다.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革命傳統을 繼承시킨다는 명분으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란 구호하에 3大革命을 推進하고 있으며 階級史觀으로부터 思想學習, 集團生活, 動員體制의 當爲性을 찾고 있다. 모든 文學作品의 創作 및 藝術活動도 허위에 불과한 歷史觀을 연장시킨 것에 불과하고 우리 古典作品의 解釋도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의 適用이란 구실하에 階級性과 革命性에 立脚해서 圖式的으로 評價를 하여 先祖들의 生活과 感情도 歪曲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階級史觀에 바탕을 둔 金日成 偶像化의 價値體系를 위반했을 때 가혹한 刑罰이 가해진다.北韓은 造作된 歷史觀을 武器로 하여 文化的 鎖國主義를 實施하며 文化的 禁忌만 擴大해서 北韓 同胞를 文化的으로 單細胞 動物化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文化風土에서 사는 民族은 文化的 삶을 영위할 수 없는 皮동적 人間으로 퇴화할 우려가 있다.

오늘날 우리는 統一의 전제조건으로 民族의 단일성을 確認해 주는 民族史의 繼承이 어떤 意味를 갖는가에 대해서 確실한 理解가 따라야 올바른 歷史認識을 할 수 있다. 民族史가 民族의 單一性을 確認해 주는 要素라면 民族史는 民族統一의 구심력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民族의 內面的 統一을 위해 北韓에서 진정한 民族史의 復活이 요구되고 있다.

現在 北韓의 國史歪曲은 各 分野에 걸친 異質化와 같이 南北間의 相應性을 멀리하여 民族統一에 큰 障礙를 주고 있다. 날조된 革命 傳統을 내세워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추구하는 金日成 一黨은 反民族 的, 反歷史的 集團으로 民族 正統性에서 離脫하고 있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北韓에서의 歷史解釋은 그 整理作業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든지 歪曲과 造作의 可能性이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계속되는 歷史歪曲과 날조는 金日成 父子가 독단적 權力을 행사하고 있는 한 불가피하다. 그러나 歪曲과 날조에 의해 形成된 歷史觀이 얼마나 지탱되겠는가? 나아가 造作된 歷史에 기반을 둔 1人獨裁體制가 얼마나 지탱할 수 있겠는가? 歪曲과 捏造의 歷史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體制는 필시 崩壞될 것이다. 虛構위에 세워진 金日成 革命傳統은 모래위에 쌓아 올린 城에 불과하다. 民族의 歷史를 모독한 金日成은 반드시 歷史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올바른 民族史觀을 定立하여 民族史的 正統性을 確立하고 우리의 文化水準을 월등히 北韓보다 높일 때, 歪曲된 史觀을 내세우는 北韓의 道전을 克服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의 近代史 捏造(要約)

1. 北韓 歷史觀의 特徵

- 假定的 絶對化, 教條的 性格, 政治的 性格을 가진 共產主義史觀에 立脚해 民族史를 解釋
 - 5 千年의 民族史를 共產主義에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把握
- 우리 民族을 支配層과 被支配層, 唯物論者와 觀念論者 등의 兩分法을 使用하여 둘로 분리
 - 兩者間의 葛藤과 對立鬭爭의 歷史過程으로 叙述
- 開港以前(1860年代)의 歷史와 開港以後의 歷史를 區別하여 記述함으로써 民族史의 脈을 단절
 - 20 世紀 前半期 歷史는 完全造作하여 金日成 個人傳記로 전락

唯物史觀 適用

區分	時 期	社 會 性 格	備 考
原 始	50 萬年前~紀元前 10 世紀	原始共同體社會	人類學的 單一種族
古 代	古朝鮮·扶餘·辰國	奴 隸 制 社 會	私的所有과 階級國家 出現
中 世	3 國時代 → 李朝末	封 建 社 會	3 國時代에 朝鮮民族 形成
近 代	開港後 → 1920 年代末	資 本 主 義 社 會	反帝 反封建 革命段階
現 代	1930 年以後	共 產 主 義 社 會	社 會 主 義 制 度 樹 立 段 階

2. 國史解釋의 圖式化

解釋事例

- 古代로부터 唯物思想을 연綿히 繼承 (陰陽五行思想 등) 했으며 對立思想으로 反動思想인 儒·佛·仙 등 觀念論이 대두된 것으로 主張
- 5千年을 階級鬭爭의 過程으로 描寫 (新羅의 3國統一은 階級鬭爭이기도 함)
- 歷史發展의 主體는 勞動者, 農民이며 歷史發展의 原動力은 鬭爭과 暴力 및 革命이라 說明 (社會革命으로 發展 못한 原因을 천편일률적으로 說明)
- 古朝鮮, 高句麗, 高麗 中心의 歷史를 強調 (平壤을 美化, 서울을 否定的으로 記述)

變遷過程

- 1956년까지는 國史不在期 : 蘇聯 共產黨史를 歷史教材로 대용
- 1956 ~ 62年 : 近代史에 置重, 學說論爭을 통한 共產主義史觀의 定着
- 1963年以後 : 歷史의 主體가 金日成 1人으로 完全轉換 (革命傳統 捏造)
- * 歷史冊이 새로 나올 때마다 金日成 活動內容을 더욱 가공的으로 美化 (例 : 1926年度 金日成 活動의 조작과정)

50年代	60年代	70年代
共 青 加 入	새날朝鮮同盟 組織	ㄷㄷ同盟 結成

3. 近代史의 捏造事例

- 金日成 偶像化 爲해 近代史를 完全捏造, 다른 人物 또는 外國의 例를 도용하여 描寫, 혹은 事實을 正反對로 叙述
 - 1930 年代 解放地區에 人民革命 政府樹立(選舉權 賦與, 産業國有化, 8時間勞動制 등 實施)
 - 金日成 曾祖父는 歷史上 처음으로 火攻戰術의 創發的 戰法을 開發하여 「서면」號 擊沈
 - 3.1 運動은 金日成 父의 影響下에 발단, 平壤에서부터 始作
- 近代의 모든 改革運動과 反日運動의 失敗原因을 片面일률적으로 描寫(革命的 鬭爭綱領, 革命의 參謀部, 革命階級의 領導者가 없었기 때문)
- * 金日成 出現과 共產黨 到來의 必然性 強調

結 論

- 虛構의 歷史에 바탕을 둔 文化風土 造成, 文化的 鎖國主義 實施
 - 住民을 文化的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피동적 人間化
- 政治, 經濟, 社會 등 諸分野 實態에 反映
 - 階級史觀에 의해 獨裁, 統制, 動員, 集團, 思想學習의 合理化
- 階級鬭爭史觀에서 對南赤化統一의 歷史的 當爲性 導出
 - 捏造한 革命傳統에 의해 民族史의 正統性에 挑戰

Ⅲ. 北韓의 政黨 · 社會團體現況

張 錫 激
(統一研修所 副教授)

目 次

1. 序 論	61
2. 政 党	62
가. 朝鮮勞動黨	63
나. 友黨政策과 그 實態	72
3. 社會團體	77
가. 勤勞大衆團體	77
나. 統一推進 前衛團體	91
다. 文化 · 芸體能團體	98
라. 宗教團體	101
마. 學術團體	103
바. 國際宣傳團體	104
4. 結 論	106

1. 序 論

北韓에서 政黨의 民主的 活動이나 結社의 自由가 保障되고, 社會의 各계 各층의 團體 또는 壓力團體가 自由롭게 創設되고 독자적인 活動이 保障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北韓에서는 모든 團體나 組織들은 「朝鮮勞動黨」의 綱領과 規約에 근거하여 組織되어야 하고, 또한 黨의 指導와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勞動黨의 核心黨員이 政治·社會 모든 團體의 幹部를 兼職하고 있으며, 이들 團體들의 綱領과 規約은 거의 一律적으로 勞動黨의 綱領과 規約을 根據로 美化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名目上 友黨이란 간판으로 「朝鮮社會民主黨」이나 「朝鮮天道教靑友黨」이라는 허수아비黨을 세워 놓고 對外宣傳용으로 利用하면서 마치 共產黨은 一黨獨裁가 아니며 複數政黨制를 실시하는 것처럼 僞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社會團體도 그 名義는 많이 存在하고 있지만 活動이 없으며 간혹 群衆集會에 代表가 蔭席해서 勞動黨과 金日成의 政策과 路線에 대하여 열렬한 支持와 讚揚의 演說이나 하며, 機會있을 때마다 對南誹謗聲明이나 海外有關 團體들에게 呼訴文을 보내는 등, 對南宣傳·煽動 등의 活動을 주된 任務로 삼는 政治的 御用團體들이며 勞動黨의 外廓團體이고 名義團體들인 것이다.

소위 黨의 外廓團體라고 내세우는 勤勞大衆의 政治組織인 「朝鮮職業總同盟」, 「朝鮮農業勤勞者同盟」, 「朝鮮社會主義勞動靑年同盟」, 「朝鮮民主女性同盟」 등 4個團體를 「朝鮮勞動黨」規約에 明示된 바는 “黨의 外廓 團體로서 大衆의 思想教養組織이며 黨과 大衆의 引傳帶로서 黨의 忠실한 幫助者”라는 규정하에 그 團體의 性格과 役割을 분명히 밝혀 실질적으로 黨과 政權의 政策遂行을 最尖端에서 조직·執行하는 黨의 觸媒的 御用團體가 되고 있다.

2. 政 黨

E. Burke 에 의하면 「政黨이란, 主義와 政見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主義와 政見에 의거한 공동의 努力으로서 公共의 利益을 增進하고자 결합한 團體」라고 定義하였다.

政黨이란 議會制度를 前提로 한다. 院內多數議席을 차지하거나 行政府首班을 自黨에서 當選케 함으로써 政權을 장악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政黨은 많은 支持大衆을 획득하여야 하며, 政黨의 政權接近方法은 民主的이며 合憲的이어야 한다.

政黨이 存立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條件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政黨은 政治上 自由團體이니만큼 政治運動에 대한 상당한 自由를 前提로 하여야 한다.

둘째, 政黨의 存立에는 人間의 合理的 存在를 基礎로 하여야 한다.

셋째, 政黨의 存立에는 健全한 反對黨의 存在를 要求한다. 이 反對黨이 있음으로써 政黨은 활발히 활동할 뿐만 아니라 발전도 하게 마련이다.

네째, 政黨은 公益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朋黨처럼 私益追求에만 힘쓴다면 政黨이 아니라 徒黨으로 轉落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政黨의 存立要件으로나 그 定義로 보아서 北韓共產集團이 내세우고 있는 「朝鮮勞動黨」이나 그의 友黨인 「朝鮮社會民主黨」과 「朝鮮天道教靑友黨」을 과연 自由民主主義의 政黨과 같이 놓고 評價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論難이 많으며 원칙상 이상의 集團을 우리 自由民主國家에서 내세우는 政黨과는 그 定義나 組織과 機能面에서는 도저히 比較할 수 없는 특수한 集團이라는 것을 먼저 銘心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政黨이라고 하는 내

容을 상세히 파헤쳐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朝鮮勞動黨」에 관하여 考察해 보기로 하자.

가. 朝鮮勞動黨

北韓政治體制的 特徵은 한마디로 1黨 獨裁體制, 1人 支配體制로 되어 있다.

첫째, 國家機關이나 각종 政治組織에 대한 「首領과 黨的 領導」가 강조되며, 國家機關이나 각종 政治組織은 黨的 指導와 領導 밑에 事業해야만 하는 이른바 「黨國家的 性格」을 뚜렷이 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主權을 잡는 勞動階級이 社會에 대한 政治的 領導」와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실현하기 위하여 首領에 의해서 唯一的으로 영도되는 「프롤레타리아 獨裁體制的 確立」이 주장되고 있다. 그들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프롤레타리아의 獨裁體制 아래서 黨은 最高的 組織形態로서 革命的 參謀部이며 嚮導的, 領導的 力量이라고 하고 있으며, 國家機關이나 勤勞團體 등과 같은 각종 政治組織들은 黨과 大衆을 연결시키고 大衆을 黨과 首領의 두리에 묶어 세우는 引傳帶이며, 黨的 路線과 政策을 執行하는 武器」라고 定義하고 있다.

둘째, 프롤레타리아 獨裁國家建設과 革命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首領이 차지하는 지위와 役割을 死活的 意義를 갖는 중요한 문제로 간주하며 首領의 唯一領導를 강조하는 1人支配體制를 制度化하고 있다. 즉 首領은 黨과 프롤레타리아 國家를 創建·指導하며 勤勞團體를 組織·指導하고 勞動階級과 人民大衆을 指導하는 最高指導者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1) 沿革

오늘날 北韓에서는 「朝鮮勞動黨」의 創建日을 1945年 10月 10日 로 公式化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45年 10月 10日부터 13日까지 平壤에서 개최된 「朝鮮共產黨 西北五道 責任者 및 熱誠者大會」에서 채택된 「政治路線과 組織強化에 관한 決定書」에 따라 창설된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이 바로 「朝鮮勞動黨」의 母胎가 되었다.

즉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이 1945年 12月에 「北朝鮮共產黨」으로 名稱을 바꾸고, 知識層·小市民層을 망라하고 있던 「朝鮮新民黨」과 合黨하여 「北朝鮮勞動黨」으로 發足を 보게 되었다.

「北朝鮮勞動黨」은 1948年 8月 「人民共和國」政權樹立을 위하여 「南朝鮮勞動黨」과 「南北勞動黨 聯合中央委員會」를 구성하였고, 1949年 6月 30日, 南北勞動黨은 「1國1黨」原則에 따라 「朝鮮勞動黨」으로 統合하였다. 여기에서 金日成은 黨委員長으로 추대되고 副委員長으로는 朴憲永, 第1秘書로는 李承燁과 金三龍이 選出되었다.

朝鮮勞動黨은 創黨以來 性格上 많은 변화를 겪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黨의 性格變化는 黨의 理念과 目標 및 組織運營에 이르기까지 나타났다.

이에 관하여 歷代 黨規約의 變遷過程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第1·2次 黨大會 規約에서는 「共產主義社會建設」이 最終目標임을 밝혔고, 1961年 9月の 第4次 黨大會 規約에서는 黨이 「抗日武裝鬪爭 革命傳統의 繼承者」임을 明白히 하였으며, 1970年 11月 第5次 黨大會 規約에서는 金日成의 「主體思想」이 黨의 理念임을 밝혔다.

그리고 1980年 10月 第6次 黨大會에서 一部 內容을 改正하여 「金日成 主體思想·革命思想」이 黨의 理念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當面目標은 「社會

主義의 完全勝利」, 「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革命」이라고 하였다. 결국 勞動黨은 「共產主義社會建設」에 最終目標을 두고 當面目標에 관하여 變化를 보여왔다. 對內的으로는 社會主義制度를 強化하여 韓半島에는 反帝·反封建民主主義革命 또는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革命으로, 對外的으로는 反帝·反美統一戰線 형성으로 그 目標을 바꾸어 왔다.<表Ⅱ-1>

<表Ⅱ-1>

組織·運營體系의 變化過程

黨大會	指 導 機 關	黨責任者	會 議 開 催 期 間
1·2次 黨大會	黨大會 → 黨中央委員會 → 政治委員會 → 常務委員會	政治委員會 委 員 長	黨大會：1년에 1회 中央委員會：3個月에 1회
合黨大會 (‘49.6)	黨大會 → 黨中央委員會 → 政治委員會 → 組織委員會	全黨委員長	黨大會：1년에 1회 中央委員會：3個月에 1회
3次黨大會 (‘56.4)	黨大會 → 黨中央委員會 → 常務委員會 → 組織委員會	中央委員會 委 員 長	黨大會：4년에 1회 中央委員會：4個月에 1회
4次黨大會 (‘61.9)	黨大會 → 黨中央委員會 → 政治委員會 → 政治委員會 → 秘書局	中央委員會 委 員 長	黨大會：4년에 1회 中央委員會：6個月에 1회
5次黨大會 (‘70.11)	黨大會 → 黨中央委員會 → 政治委員會 → 秘書局	中央委員會 總 秘 書	黨大會：4년에 1회 中央委員會：6個月에 1회 以上

6次黨大會 ('80.10)	黨大會 → 黨中央委員會 → 政治局 → 政治局常 務委員會 → 秘書局	中央委員會 總 秘 書	黨大會 : 5 年에 1 回 中央委員會 : 6 個月에 1 回 以上
--------------------	--	----------------	---

(2) 黨 勢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時期에는 4,530명을 가진 前衛組織으로 출발하였으나 「朝鮮新民黨」과의 合黨을 계기로 급속히 增加됨으로써 大衆的 政黨化를 꾀하였다.

1950年 12月 1日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第3次全員會議에서 金日成은 戰爭過程에서 나타난 黨內的 結함을 지적하고 黨의 規律을 強化하는 조치를 취했다. 당시 60萬 黨員中 약 75%에 해당되는 45萬名을 責罰함으로써 위기를 맞게 되었으나 1951年 11月 1日 第4次全員會議에서는 新入黨員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黨員數는 약 100萬名으로 急增하였으며, 1956년에는 116萬 4,945名에 달했다. 이들 黨員中 51.7%가 1951年 11月 以後에 加入한 黨員이었다. 그러므로써 舊黨員과 新黨員의 比率은 5:5의 現象을 나타내게 되었다. 1961年 9月 現在 黨員數는 131萬 1,563名에 이르렀으며, 1978年 1月 現在는 約200萬名으로 增加했으며, 1980年 第6次 黨大會時的 推定에 의하면 黨員數가 306萬 2,000名이나 되고 있다. 이는 第5次 黨大會時보다 約100萬名이 增加된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表Ⅱ-2>

<表Ⅱ-2>

黨員增加趨勢

時 期	黨 員 數	黨細胞數
朝鮮共產黨 北朝鮮分局 3次擴大執行委員會 (1945.12)	4,530	
北朝鮮勞動黨 1次大會 (1946.8)	366,000	12,000
北朝鮮勞動黨 2次大會 (1948.3)	725,762	28,000
朝鮮勞動黨 中央委 5次 全員會議 (1952.12)	1,000,000	48,933
朝鮮勞動黨 3次大會 (1956.4)	1,164,945	58,259
朝鮮勞動黨 4次大會 (1961.9)	1,311,563	65,000
朝鮮勞動黨 創建 20周年 (1965.10) ①	1,600,000	
朝鮮勞動黨 創建 25周年 (1970.10) ②	1,600,000	
1972.8 ③	2,000,000	
1978.1 ④	2,000,000	
1980. ⑤	3,062,000	

出處：各黨大會 中央委 事業報告，金日成 演說 및 <조선중앙년감>을 근거로 작성.

註：①로동신문 (1965.10.10 일자) ②로동신문 (1970.10.10 일자)

③로동신문 (1972. 8.29 일자) ④로동신문 (1978. 1.29 일자)

⑤國土統一院，「北傀勞動黨 및 外廓團體現況」1981.P.4

(3) 組織과 機能

(가) 中央組織

朝鮮勞動黨의 最高指導機關은 「黨大會」로 되어 있다.

朝鮮勞動黨 規約 第22條를 보면，黨大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黨大會

黨大會는 黨의 最高指導機關이며, 黨大會는 5 年에 1 回 黨中央委員會가 召集된다. 黨大會는 黨中央委員會 및 中央檢査委員會의 事業을 總和하고, 黨綱領과 規約을 採擇·修正補充하며, 黨路線과 政策, 戰略戰術의 基本問題를 결정하며 黨中央委員會 및 中央檢査委員會의 選舉와 같은 機能을 수행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事實상 黨中央委員會 또는 政治委員會의 決定事項들을 만장일치로 可決하는 役割만 遂行한다.<表II - 3 >

<表II - 3 > 黨大會 開催現況

黨大會	開催日字	代表數	代表構成	備考
北朝鮮勞動黨 1次大會	1946. 8.28 ~ 30	801名		
北朝鮮勞動黨 2次大會	1948. 3.27 ~ 30	999名 (이중 9名 은 不參)	勞動者: 466 農民: 270 事務員: 234 其他: 29	發言權만 갖는 代表: 96名
朝鮮勞動黨 3次大會	1956. 4.23 ~ 29	916名 (이중 2名 不參)	勞動者: 439 農民: 192 事務員: 246 其他: 39	
朝鮮勞動黨 4次大會	1961. 9.11 ~ 18	1,657名 (이중 3名 不參)	勞動者: 944 農民: 451 事務員: 191 其他: 71	
朝鮮勞動黨 5次大會	1970.11. 2 ~ 13	1,734名		發言權만 갖는 代表: 137名
朝鮮勞動黨 6次大會	1980.10.10 ~ 14	3,220名		

出處: <조선중앙년감>을 根據로 作成.

북한개요, 국토통일원, 1981, p.29 를 참조하여 筆者가 보충
하였음.

또한 朝鮮勞動黨은 모든 地域別 部門別로 階序的 組織을 가지며, 그 組織原理는 下級黨 組織은 上級黨 組織을 選舉하고 上級黨 組織은 下級黨 組織의 事業을 指導檢閱한다는 데에 基礎하고 있다.

黨組織의 最高指導機關은 全黨의 경우는 黨大會이고 道(直轄市), 市(區域)·郡黨의 경우는 해당 黨代表會이다.

2) 中央委員會

黨中央委員會는 필요에 따라 직속으로 주요 政治·經濟·軍事機關에 政治局을 組織하며, 이 政治局들은 해당 機關에 組織된 黨委員會의 執行部로서 機能을 遂行한다.

黨中央委員會의 任務(黨規約 第23條)를 보면, 全黨에 唯一思想體系의 확립, 黨의 路線과 政策樹立 및 그 실행을 組織指導하며, 黨과 革命隊列을 鞏固히 하고 行政 및 經濟事業을 指導調整하며 革命的 武力을 組織, 그들의 戰鬥能力을 높이고 기타 政黨 및 國內外 機關의 活動에서 黨을 代表하며 黨의 財政을 管理한다.

中央委員會는 正委員 142名과 候補委員 104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3) 黨細胞

黨의 基層組織은 黨員生活의 據點, 黨의 戰鬥單位로 定義되는 「黨細胞」이다. 黨細胞는 黨員5~30名 單位로 組織된다. 黨員5名未滿의 單位에는 黨細胞를 두지 않고 隣接 黨細胞에 所屬시키거나 2個以上 單位의 黨員을 合併하여 1個의 黨細胞를 組織할 수 있다.

또한 黨員 31名以上이 있는 單位에는 初級黨組織을 둔다. 初級黨과 部門黨 또는 黨細胞의 組織形成만으로는 黨基層 組織構成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初級黨組織과 部門黨組織 사이에 있는 生産單位나 기타 活動單位에 分初級黨委

員會를 組織할 수 있다.

4) 政治局 (政治委員會를 6次黨大會時 政治局으로 改稱)

政治局은 黨의 모든 政策을 樹立하는 事實상의 최고 核心部署이다. 政治局은 黨中央委員會 政治局과 政治局 常務委員會는 黨中央委員會의 명의로 黨의 모든 事業을 組織指導하도록 되어 있다. 政治局은 19名의 正委員과 17名의 候補委員으로 구성되어 있다. 事實상으로는 5名으로 構成된 常務委員會가 政治局의 實權을 行使하고 있다. 그리고 歷代 政治局은 黨勢의 擴張에도 불구하고 그 構成員數는 큰 變化가 없는 데 이는 소수의 政治局員이 勞動黨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2年末 現在로 正委員이 17名에서 19名으로 2名이 追加되었다.)

5) 秘書局

秘書局은 幹部問題, 黨內問題, 當面問題 等を 정기적으로 托의 결정하고 그 執行을 組織指導하도록 되어 있으며, 中央委員會의 各部署를 指揮監督하는 黨의 中樞機關이다. 또한 秘書局은 政治體制 전반에 걸쳐 黨的 指導, 統制役割을 담당한다. 金日成이 總秘書를 맡고 있으며, 그 밑에 10名으로 構成된 各分野別 秘書로 構成되어 있다.¹⁾

6) 軍事委員會·檢閱委員會·中央檢査委員會

가) 軍事委員會는 朝鮮人民軍의 各급 部隊에 설치된 黨組織 전체를 唯一的으로 網羅하는 軍事部門의 最高黨政策議決機構로서 軍에 대한 黨의 指導를 보장해 주는 中央通路이다. 그리고 黨의 軍事政策을 托의 결정하며 軍需産業과 軍事力強化를 위한 事業을 組織指導한다.

註 1) ① 金正日 (黨事業全般), ② 金仲麟 (對南), ③ 金永南 (國際), ④ 延亨默 (輕化學工業), ⑤ 金渙 (科學·教育), ⑥ 玄武光 (重工業), ⑦ 尹基福 (經濟), ⑧ 黃長燁 (思想), ⑨ 徐寬熙 (農業), ⑩ 許貞淑 (勤勞團體).

나) 檢閱委員會는 反黨行爲, 黨의 綱領과 紀律을 위반하는 행위, 黨의 紀律問題와 관련된 下級黨委員會의 提議와 黨의 告訴를 심의 해결하는 機能을 遂行한다.

다) 中央檢査委員會는 黨大會에서 選舉하여 構成되며, 黨의 財政 經理事業을 檢査하는 機能을 맡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金日成을 비롯한 黨高位層은 물론 中央黨이 집행한 經理에 있어서 不正을 밝혀 낸 일도 없고 또한 밝혀 낼 수도 없다. 다만 形式的으로 報告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

(나) 地方組織

道(直轄市)黨과 市(區域)·郡黨 등 各級 地方黨 組織體系는²⁾ 黨 中央機關의 組織原則에 準하고 있다.

地方黨 代表會는 3年에 1回 召集키로 규정되어 있으나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召集할 수 있도록 하였다. 地方黨 代表會에서는 해당 地方 黨委員會와 檢査委員會의 委員, 上級黨會議에 尙한 代表를 選出하고 檢査委員會 事業을 총괄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各級 地方黨委員會는 常務委員과 責任秘書와 秘書를 선거하고 秘書處, 軍事委員會 및 檢閱委員會를 組織한다.

地方黨委員會의 任務는 黨員들에게 黨事業을 부여하고 黨生活을 指導하며 勤勞大衆들이 자기 基本課業을 완수할 수 있도록 指導檢閱한다. 또한 勞農赤衛隊의 강화를 위해 그 戰鬥力의 向上을 組織指導하고 政治思想教養을 하며 軍事動員事業을 保障한다. 그리고 黨 規律을 위반한 자에 대한 責任追窮, 處罰, 黜黨을 결정하고 비준한다.

註 2) 傘下組織으로 道(直轄市)黨委員會, 市(區域)·郡黨委員會, 初級黨委員會, 黨細胞 등이 있다.

나. 友黨政策과 그 實態

北韓共產集團의 이른바 憲法(第 53 條)에는 「民主主義的 政黨·社會團體의 자유로운 活動條件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規定은 한낱 걸치레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신봉자들은 共產主義 以外の 어떠한 이데올로기와도 平和共存을 할 수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共產主義는 共產黨의 一黨獨裁로 프롤레타리아트 以外的 모든 階級은 鬭爭의 대상이며 타도해야 할 目標로 제시된다.

北韓共產集團도 「朝鮮勞動黨」이라는 「金日成 一派의 黨」 以外에는 어떠한 政黨도 存在할 수 없으며, 더구나 政策對立으로 견제하는 野黨이란 存在할 수가 없는 것이다.

北韓共產集團은 共產主義 革命을 進展시키기 위해서는 마치 北韓에도 政黨·社會團體가 있고 結社의 自由가 있는 것 같이 偽裝하려는 欺瞞術을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術策은 韓國의 國民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며, 마치 金日成 一派가 北韓住民들로부터 支持를 받는 政權으로 偽裝하려는 속셈이다.

北韓共產集團이 전개하는 友黨制度는 우리의 複數政黨制와는 根本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友黨에 속해 있다고 發表된 사람들은 形式上으로는 友黨의 黨員으로 되어있으나 實際로는 勞動黨員이 兼職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對南工作要員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어떤 政黨의 이름을 내놓든지, 어떤 友黨의 黨員이든지 모두가 對南工作을 위해 偽裝한 共產黨員들이다. 여기서 例를 들어보면, 1956年 당시 朝鮮民主黨 黨首라는 崔庸健이가 朝鮮勞動黨 副委員長을 兼職하고 있었다. <表Ⅱ-4 參照>

<表Ⅱ-4> 社會團體의 要職을 勞動黨員이 兼職한 現況

(1982年現在)

社會團體名	職位	姓名	黨職·序列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委員長	金 一	勞動黨中央委員會 常務委員, 黨序列 3位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副委員長	洪 起 文	黨序列 132位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代表者	許 貞 淑	黨秘書 黨序列 55位
對外文化連絡協會	委員長	金 寬 燮	黨中央委委員 黨序列 52位
對外文化連絡協會	副委員長	玄 峻 極	黨中央委國際部副部長 黨序列 114位
世界人民들과의 連帶性 朝鮮委員會	委員長	金 寬 燮	黨中央委委員 黨序列 52位
朝鮮農業勤勞者同盟	委員長	金 二 勳	
朝鮮民主女性同盟	委員長	金 聖 愛	黨中央委委員 黨序列 105位
朝鮮職業總同盟	委員長	金 鳳 柱	勞動黨中央委候補委員 黨序列 37位
朝鮮赤十字會	委員長	孫 成 弼	勞動黨中央委候補委員 黨序列 38位
朝鮮올림픽委員會	委員長	金 裕 順	勞動黨中央委候補委員 黨序列 41位

出處：國土統一院資料：(「北韓의 機關 및 團體別 人名集」, 1982, pp. 3~12 參照)

(1) 朝鮮社會民主黨

1945年 11月 3日 平壤에서 「朝鮮民主黨」이 創黨되었으며 당시의 黨首는 古堂 曹晩植이었다. 그가 「朝鮮民主黨」을 創黨한 것은 자신의 自意的인 것이 아니라 蘇聯軍政의 忠용과 당시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것이었다. 즉 形式的이나 複數政黨制度를 만들어 民主主義制度를 실시한다는 것을 세계에 宣傳하자는데 目的이 있었다.

1945年 10月 14日 金日成이 정식으로 登場하여 曹晩植에게 政黨組織을

제의하여 蘇聯軍의 만행으로 混亂해진 民心을 曹晩植을 지지하는 大衆의 心理를 集中시켜 안정세력을 구축해보려고 하였으며 자기는 副黨首로 되어서 對蘇關係를 담당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創黨前夜 金日成은 자기가 蘇聯軍政의 배후에서 조종자의 位置에 있으면서 朝鮮民主黨과 共產黨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有益하다는 구실로 양해를 구하고 대신 崔庸健과 金在民(一名: 金策)을 古堂에게 소개시켜 崔庸健을 副黨首로 하고 金在民을 黨書記長 및 政治部長으로 選出하게 하였다. 그 後 崔庸健은 曹晩植이 反託問題로 辭任하자 黨首자리를 차지하고 朝鮮民主黨을 완전히 朝鮮勞動黨에 隸屬시켜 버렸다. 그는 1948年 3月 第3次 全黨大會를 열고 勞動黨의 綱領과 흡사한 綱領을 채택하였다.

崔庸健이 朝鮮民主黨의 黨首가 되자 黨의 高位幹部 李允榮, 韓根祖, 金炳淵, 李宗鉉, 白南弘 등이 38線을 넘어 越南하여 1946年 1月에 黨의 本據地를 서울로 移轉했음을 發表하고 活動을 개시하였다.

1956年 4月 勞動黨 第3次大會에서 崔庸健은 朝鮮民主黨 黨首의 신분으로 勞動黨의 副委員長을 兼職하게 됨으로써 友黨이라기 보다는 隸屬화된 셈이었다. 1958년에 이르러 地方組織의 전면적 解體를 착수하였으며, 1960년에 와서는 道黨組織體系마저 解體해 버렸다. 그러므로 朝鮮民主黨은 中央部分만 남아 있어서 勞動黨의 外廓御用集團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朝鮮民主黨은 所謂 朝鮮勞動黨의 友黨으로서 名稱만 남아있게 되었으며, 各種 聲明이나 呼訴文을 發表하여 對南宣傳活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名稱을 利用해 왔으며, 統一問題 等 南北關係에 있어서 政黨·社會團體會議에 僞裝參加하는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

組織現況을 보면 金日成의 外從祖父인 康良煜이 代表者(委員長, 國家副主席)로 되어 있으며, 그 밑에 副委員長으로는 金碩俊, 金成律, 金台涉, 嚴國렬 등이 있다.

「朝鮮民主黨」은 1980年 10월에 열린 第6次 黨大會에서 黨名을 「朝鮮社會民主黨」으로 改稱하기로 決議함에 따라 1981年 1월부터는 「朝鮮社會民主黨」으로 呼稱되고 있다.

1981年 2월에는 프랑스 社會黨 黨首인 미테랑이 北京을 거쳐 平壤을 訪問하자 副委員長인 曺錫堧이 會談에 參加하였으며, 同年 2월에 日本社會黨 委員長 아스까다 이찌오와 다시 曺錫堧이 會談을 갖게 됨으로써 最近에는 「朝鮮社會民主黨」이라는 이름으로 各國의 社會黨代表와 會議를 빈번히 가짐으로써 社會主義政黨과의 접촉을 試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朝鮮天道教青友黨

「天道教青友黨」은 天道教徒들의 政黨으로 출현했다. 이 黨은 1919年 9月 2일에 金起田을 黨首로 하여 創黨된 적이 있었으며, 解放後에는 南韓에서 먼저 1945年 9月 14일에 天道教青友黨이 金秉淸을 委員長으로 組織되었다.

1946年 2月 1日 「天道教 北朝鮮宗務院」이 정식으로 蘇聯軍政下에서 認可를 받고 설립되었는데 共產治下의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은 6.25前까지 北韓에 99個의 道·郡宗務院을 組織하여 教勢를 확장시켰었다.

蘇聯軍政은 이같은 勢力을 무시할 수가 없었으나 반면에 朝鮮民主黨을 견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天道教信者들을 政治적으로 利用하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蘇聯軍政은 天道教 北朝鮮宗務院에서 중요한 役割을 담당해오던 金達鉉을 회유하게 되었고, 그 後 1946年 2月 8日 金達鉉을 黨首로 하는 「北朝鮮天道教青友黨」을 創建하게 하였다.

1947年 4月 第1次 全黨大會를 열고 金日成 일당의 共產政權樹立을 支持하는 政綱을 採擇하였다.

1948年 3月 1日 3.1節을 기하여 北韓全域에 反共義舉를 일으키라는 서울 天道教中央總本부의 지령을 지닌 密使가 入北하자 金達鉉의 背信行爲로 北韓의 天道教는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靑友黨은 점차 沒落하게 되었다.

1950年 南韓에서 越北한 南朝鮮靑友黨을 흡수하는 형태를 취하여 南北靑友黨을 合黨하여 朝鮮天道教靑友黨을 發足하고 委員長에 金達鉉, 副委員長에 朴允吉, 李龍奎, 金秉濟가 選出되었다.

그러나 6.25動亂을 치르는 동안 朝鮮天道教靑友黨은 朝鮮民主黨과 같이 高位黨職者는 北韓의 政策에 적극 협조 하였으나, 일반 黨員이나 信者들은 反共隊列에 分연히 踴기하였으며 이에 北韓共產集團은 무자비한 보복을 감행했다.

특히 黨首인 金達鉉이 숙청되고, 1959년에는 市·郡黨 以下の 組織이 解體되었고, 1960년에는 道黨組織까지 解體되기에 이르렀다.

1959年 1月 委員長에 朴新덕이 任命되었으며, 1972年 8月에 南北赤十字會談 本會議가 開催되자 北韓側 諮問委員中 姜장수가 朝鮮天道教靑友黨 副委員長의 자격으로 參席한 바 있으나, 이 者는 天道教 教理를 하나도 모르는 共產黨員이었다.

北韓은 1982年 8月 23日~24日(2日間)까지 名稱만 存在하는 天道教靑友黨이 第6次 大會를 平壤에서 開催하였다.

同 大會에서는 中央委員會 事業總和, 黨綱領 規約制定 및 黨中央指導機關 選舉에 대하여 討論하였고, 특히 南朝鮮 및 海外天道教人에게 보내는 呼訴文을 採擇하였다.

同 黨委員長 정신혁은 報告文에서 「同黨이 金日成을 民族의 最高領導者로, 人和團結의 中心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 나가는 것을 一括된 原則으로 삼아왔다」고 強調하였다.

또한 統一問題에 있어서도 「同黨은 金日成이 提示한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을 가장 公明正大한 方案으로 認定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우릴 것」을 強調하고 있다.

現在로서는 朝鮮天道教青友黨의 中央委員會 委員長은 정신혁이가 맡고 있고 副委員長은 최희준, 리득엽이가 맡고 있다.

朝鮮天道教青友黨도 朝鮮社會民主黨과 같이 對南戰略의 宣傳用으로 利用되고 있으며, 名稱만 남아있는 勞動黨의 友黨으로서 各種 聲明이나 談話를 발표할 때에 對南宣傳과 煽動活動에 利用되며, 統一問題 等 南北關係 政黨·社會團體會議에 僞裝하여 參加하는 機能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3. 社會團體

가. 勤勞大衆團體 (勞動黨의 外廓團體)

朝鮮勞動黨 規約 第9章 「黨과 勤勞大衆의 組織」에 의하면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광범한 勤勞大衆의 政治組織이며, 抗日革命鬪爭의 榮光스러운 傳統을 繼承하는 黨의 外廓團體이다.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광범한 大衆의 思想教養 組織이며, 黨과 大衆을 연결하는 引傳帶이며 黨의 충실한 補助者이다.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黨의 指導下에 自己의 事業을 進行한다」(第56條)라고 하였다. 또한 同第57條에는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同盟員들 속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튼튼히 꾸리며, 同盟隊列을 強化하며, 組織生活과 思想教養事業을 強化하고,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통해 同盟員들을 黨 두리에 結束시키며 3大革命 붉은旗爭取運動과 社會主義競爭運動을 展開하며, 同盟員들을 革命과 建設에 積極 動員한다」고 하여, 勤勞者들을 義務的으로 同盟에 加入케하여 大衆의 思想教育의 組織으로 利用할 뿐만 아니라, 黨과 人民大衆을 묶어 놓는 引傳帶로 活用하면서 唯一思想으로 튼튼히 武裝시켜 3大革命 붉은旗爭取運動과 같은 強制勞動에 몰아넣고 있는 勞動力搾取의 組織으로 利用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同規約 第 58 條에는 「各級 黨組織들은 勤勞大衆의 幹部隊列을 강화하고, 勤勞大衆組織의 媒體를 통하여 大衆과의 事業體系를 樹立하며, 勤勞大衆의 特性에 맞게 事業方向과 方法을 정확히 提示하며 그들이 自發적으로 自己任務를 遂行하도록 監督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勞動黨의 外廓團體로서 組織되고 있는 團體는 「朝鮮職業總同盟」, 「朝鮮農業勤勞者同盟」,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과 「朝鮮民主女性同盟」 등이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勤勞大衆의 政治組織으로서 黨의 外廓團體로서 大衆의 思想敎養組織이며, 黨과 大衆의 引傳帶로서 黨의 충실한 補助者의 役割과 機能을 遂行하고 있는 것이다.

(1) 朝鮮職業總同盟 (職總)

朝鮮勞動黨 第 3 次 全員會議의 결정에 의하여, 1951 年 1 月 20 日에 召集된 「南北朝鮮職業總同盟聯合會議」에서 北朝鮮職業同盟과 朝鮮勞動組合 全國評議會를 「朝鮮職業總同盟」으로 統合하여 單一化시켰다.

10 個의 産業別 機構³⁾로 擴大된 盟員數는 1961 年에 172 萬名, 1968 年에는 200 萬名 (職總 4 次大會), 1981 年 현재는 約 250 萬名에 이르고 있다.

朝鮮職業總同盟은 全勞動者 事務員들의 總集結體로서 勞動黨의 政策을 실천하며 共產政權을 幫助하는 前衛隊로서 活動하고 있다.

註 3) ①朝鮮公務員職業同盟 ②朝鮮水産勞動者職業同盟 ③ 朝鮮商業일꾼職業同盟 ④朝鮮教育文化保健일꾼職業同盟 ⑤朝鮮金屬機械工業勞動者職業同盟 ⑥朝鮮化學工業勞動者職業同盟 ⑦朝鮮建設林業勞動者職業同盟 ⑧朝鮮運輸港灣勞動者職業同盟 ⑨朝鮮鑛業·動力勞動者職業同盟 ⑩朝鮮輕工業勞動者職業同盟

朝鮮職業總同盟은 형식상 勞動者와 事務員의 組織體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勞動黨의 統制下에 있다. 幹部는 勞動黨에서 지명하여 職總會議에서는 형식상 절차를 밟아 選出하고 있으며, 事業計劃은 勞動黨의 指示에 의해 행하며 철저한 監督을 받게 된다. 또한 中央機關은 물론 10個 産業別職業同盟의 幹部級은 모두 勞動黨의 熱誠分子로 되어 있다.

朝鮮職業總同盟 規約 第1章 總則에 의하면 「職總은 勞動黨의 擁護者이며 黨의 領導下에 모든 活動을 전개한다.

職總은 勞動階級의 統一과 團結을 強化하며 그들을 黨 周圍에 結束시켜 黨이 제기한 革命任務遂行에로 組織動員한다.

職總內的 黨思想體系를 확립하며 宗派主義, 地方主義, 家族主義를 비롯한 부르조아思想 殘滓를 反對하여 鬪爭한다.

管理의 學校, 經營의 學校, 共產主義의 學校로서 職總은 社會主義 建設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黨의 指導下에 工場·企業所에 生産協議會를 組織 運營하며 相互義務를 실행하기 위해 團體協約을 締結한다」라고 規定하여 職總은 勞動者의 利益을 擁護하는 團體가 아니라 勞動黨의 政策을 職場을 통해 遂行하는 機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朝鮮職業總同盟은 겉으로는 全體 勞動者들을 하나로 結束하여 勞動者들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向上과 權益擁護를 위하는 大衆的 勤勞團體임을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黨과 政權의 政策遂行을 最尖端에서 組織·執行하는 黨의 觸媒的 御用團體라고 말할 수 있다.

1968년에 修正된 職總의 規約에는 盟員의 義務條項을 強化하고 盟員의 權利條項은 削除했다.

이와 같이 職總은 모든 勞動者와 事務員을 黨의 統制속에 몰아넣기 위한 統制機構일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 競爭運動을 비롯한 모든 勞動制度와 勞動秩序까지 간섭하는 監督機構인 것이다.

組織現況으로는 1977年부터 金鳳柱가 委員長으로 있고 副委員長에는 김희수, 김영남, 文炳錄, 김정숙, 조성일, 우중학, 김국삼 등이 맡고 있으며,傘下組織으로는 道(直轄市)委員會, 市(區域)郡委員會, 初級團體委員會(工場·企業所單位)가 있다.

北韓은 1981年 11月 27日~30日까지 平壤에서 「朝鮮職業總同盟」 第6次大會를 開催하였다.

同大會에는 金日成·金正日을 비롯한 黨·政 高位幹部와 各市道 職總代表들이 참석하여 委員長 金鳳柱가 事業總和報告를 하여 「온 社會의 主體思想 綱領의 具顯」을 職總의 當面課題로 提示하였다. 이어서 「金日成에게 보내는 盟誓文」과 함께 「南朝鮮 勞動者에게 보내는 呼訴文」을 採擇하였고, 金日成의 直接 演說을 통하여 思想革命의 強化를 통한 職總員들의 철저한 革命化를 重點課業으로 제시하였다. 同大會는 4年에 1回씩 開催토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10年만에 열렸다.

그들은 「로동신문」에 「職業同盟 事業에서 새로운 轉換의 契機로 될 意義 깊은 大會」라는 題下의 社說(로동신문 1981.11.27일자)을 掲載하여 크게 宣傳하고 있는데,

이 大會에서 나타난 特徵은,

- ① 金正日의 黨序列이 4位에서 2位로 格上되었으며,
- ② 許貞淑(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副議長·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書記局長·祖國平和統一委員會副委員長·海外同胞援護委員會 委員長)이 黨序列 55位인데, 黨秘書 資格으로 參席하였고,
- ③ 金鳳柱는 事業總和報告中에서, 金日成·金正日 後繼體制的 기층화를 宣言하였고 「思想·技術·文化의 3大革命 路線을 받들고 온 社會의 主體思想化綱領을 빛나게 實現해 나가는 것」을 중점과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強調하고 「職總속에 남아 있는 낡은 思想殘滓를 없애는 한편 反動的

思想毒素가 外部로부터 侵襲해 오는 것을 막아야 하며, 對外活動을 적극 벌임으로써 革命的 合理的 國際的 環境을 만들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民間外交의 強化를 강조했다.

④ 김충직을 團長으로 하는 南韓의 勞動者 代表團이 參席했다고 날조하였다.

北韓은 1982年 1月 31日~2月 1日(2日間)까지 平壤에서 「朝鮮職業總同盟」中央委員會 第2次 全員會議을 開催하였다.

同大會에서는 지난 1981年 11月 30日에 열렸던 同同盟 第6次大會에서 행한 金日成의 演說 「勞動階級은 온 社會를 主體思想化하는 鬭爭에서 核心部隊가 되자」를 觀聽할 때 대한 討議를 進行하고 勞動黨 中央委 第6期 第4次 全員會議에서의 金日成 敎示를 執行할데 대한 論議를 하였다.

그리고 1982年 7月 6日~7月 7日(2日間)까지 平壤에서 同同盟 中央委員會 第3次 全員會議가 열렸다.

同大會에서는 「金日成의 敎示(1982.6.5)를 철저히 貫徹하기 위한 職總組織들의 課業에 대하여」라는 主題下에 討論하였다.

또한 1982年 9月 28日에는 端川에서 同同盟 中央委員會 第4次 全員會議을 開催하였다.

同全員會議에서는 「金日成이 勞動黨 中央委員會 第6期 第6次 全員會議에서 한 敎示를 철저히 貫徹하기 위한 職總組織들의 課業에 대하여」라는 主題下에 討論을 進行하고 150萬屯의 유색금속 고지를 앞당겨 占領할 것을 要求하였다.

이와 같이 빈번히 中央委員會 全員會議를 召集하여 最近 金日成의 敎示와 黨中央이 提示한 方針을 깊이 解說 浸透시키는 事業을 벌리는 것은 第2次 7個年經濟計劃의 원만한 推進과 80年代 社會主義建設 10大展望目標의 早期 達成을 위해 「千里馬運動」, 「3大革命 붉은旗爭取運動」등에 이은 「80

年代速度創造」, 「金日成 6.5 教示貫徹」등의 새로운 勞力煽動 口號와 더불어 各種 社會主義 競爭運動에 全 勞動者들을 지속적으로 組織 動員하려는데 血眼이 되고 있다.

한편 北韓共產集團은 職總의 對外活動을 일층 強化하여 左傾國際勞動團體들과의 連繫下에 對南·對美 謀略·煽動·宣傳 活動을 더욱 強化하고 있는 것이다.

(2) 朝鮮農業勤勞者同盟 (農勤盟)

1945年 12月 8日 農民들의 전국적 組織體인 「全國農民組合 總聯盟」이 결성되었으나 南北分斷으로 인하여 北韓에서만 「北朝鮮農民同盟」이 組織되었고,

1951年 2月 11日 南勞黨 外廓團體였던 「農民組合總聯盟」과 통합하여 이른바 「朝鮮農民同盟」으로 改稱되었는데,

이 農民同盟은 北韓에서 農業集團化가 시작되면서 유명무실한 組織體가 되었다.

그리고, 1964年 2月 25日 勞動黨 第4期 8次 全員會議에서 「社會主義農村問題에 관한 테제」가 發表되었고, 同年 6月 第4期 9次 全員會議에서 「農業勤勞者同盟」을 組織할 것을 결정하여 勞動黨의 管掌下에 「農業勤勞者同盟」組織에 着手했다.

그리하여 모든 農民들이 義務적으로 加入되었고, 1965年 3月 25日 平壤에서 「朝鮮農業勤勞者同盟」 創立大會가 개최되어 初代 委員長에 黃元輔가 選出되었다. (黃元輔는 1967年 9월에 解任되었다)

그런데 朝鮮農業勤勞者同盟의 規約에 「朝鮮農業勤勞者同盟은 朝鮮勞動黨의 領導밑에 自己의 모든 活動을 組織展開하는 黨의 믿음직한 補助者이며, 黨과 우리나라 農業部門의 勤勞大衆을 連結시키는 引傳帶이다」라고 하였고, 또

한 前述한 바와 같이 「勤勞大衆의 組織들은 同盟國들 속에서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튼튼히 꾸리며 同盟隊列을 強化하며 組織生活과 思想教養事業을 強化하고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통해 同盟員들을 黨의 두리에 結束시키며 3大革命 붉은旗爭取運動과 社會主義 競爭運動을 展開하며, 同盟員들을 革命과 建設에 積極 動員한다」(勞動黨 規約 第57條)고 하여 勞動黨의 外廓團體로서 黨의 路線과 政策을 수행하는 機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1964年 6月 勞動黨 第4期 9次 全員會議에서 農業勤勞者同盟은 「協同農民들과 國營農場 및 社會主義 農村經理에 직접 服務하는 國家機關, 企業所, 職場의 勞動者, 技術者, 事務員들의 革命的 大衆集團이며 黨과 農業部門의 勤勞大衆을 연결시키는 引傳帶이다」라고 그 性格을 확실히 規定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社會主義農村業務의 促進과 農村에서 思想·技術·文化의 3大革命 促進, 그리고 思想教養事業의 強化에 힘쓰고 있다.

農業勤勞者同盟의 組織은 勞動黨의 命令과 指示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農民을 監視·統制하며, 農民의 勞動力을 최대한 搾取하자는 目的에서 組織되었으며, 순수한 農民(協同農場員)만 加入하는 것이 아니라 農場과 관련 있는 부문에 從事하는 사람들을 總網羅했다. 즉 協同農場員을 비롯하여 國營農場, 國營牧場, 郡協同農場經營委員會, 灌溉管理所, 農機械製作所, 農機具工場, 資材供給所, 家畜衛生防疫所 등의 勞動者 事務員까지 加入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創設當時에 盟員數가 230萬名이던 것이 현재는 約 300萬名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1970年 11月 勞動黨 第5次 黨大會에서 결정된 「農業部門의 課業」이 바로 農業勤勞者同盟의 活動指針이 되었는데, 「農村의 技術促進과 農業生産性 提高, 그리고 農民生活向上과 思想革命의 繼續推進」 등이 제시되었다.

1975年 3月 24日 農業勤勞者同盟 創立 10周年 報告大會에서 委員

長 金二勳은 全盟員의 唯一思想化와 75年内 800萬톤 알곡 高地占領, 그리고 農業의 現代化·科學化 등을 強調했다.

그리고 1976年 10月 勞動黨 第5期 第12次 全員會議에서 農業勤勞者 同盟의 主力事業으로 「自然改造5大方針」을 發表했는데, 그것은

- ① 밭 灌溉體制導入
- ② 土地改良事業
- ③ 다락밭改造
- ④ 治山治水
- ⑤ 干瀉地 開墾 등이다.

마지막으로, 組織現況을 보면 委員長에는 金二勳이 맡고 있으며, 副委員長은 이종원, 박용배, 석용원, 최성숙등이 맡고 있다. 그리고 傘下組織으로는 道(直轄市)委員會, 市(區域)郡委員會, 初級團體委員會(協同農場單位)로 되어 있다.

北韓은 農業勤勞者同盟 中央委員會 第18次 全員會議를 최근에 平壤에서 開催하고 農勤盟 第7次 大會를 1982年에 召集하기로 決議하였는데, 議題로는 「革命發展의 要求에 맞게 農勤盟員들에 대한 思想教養事業을 強化할 데 대하여」라는 내용으로 「盟員들 속에서 革命教養, 共產主義 教養, 社會主義的 愛國主義教養을 힘있게 벌리고 思想教養의 形式과 方法을 改善,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다그치며 農業生産에 이바지 하자」는 決意를 다지고 「農勤盟」의 当面課業으로 「3大革命 붉은旗 爭取運動과 숨은 英雄들의 模範을 따라 배우는 運動을 계속 힘있게 艱難의 目標를 어김없이 遂行하자」는 것을 내세웠다.

(3) 朝鮮民主女性同盟(女盟)

1945年 11月 18日 「北朝鮮民主女性同盟」으로 創立되어 1951

年 1 月 到 「南北朝鮮女性同盟合同中央委員會」에서 「朝鮮民主女性同盟」으로 統合·改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女盟의 任務는 女性들 속에서 共產主義 敎養을 강화하며 그들의 政治意識과 文化水準을 더욱 높이고 社會主義 建設에서 勤勞女性들의 役割을 더욱 提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외에도 女盟의 任務는 金日成을 政治思想的으로 목숨을 바쳐 擁護하여 保衛하고 金日成과 黨의 참다운 近衛隊, 決死隊가 되는 것이다.

한편 女盟은 政治學習을 통한 敎養事業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金日成 唯一體制 確立에 크게 寄與하고 있다.

또한 1970年 11月 勞動黨 第5次 黨大會에서 결의된 「2個月講習」에 女盟員들을 대거 參加시킴으로써 金日成과 黨의 侍女노릇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1971年에 開催된 女盟 第4次 大會에서는 女盟의 當面課題로 다음과 같은 課業을 부여하였다.

① 모든 分野에서 낡은 社會의 生活樣式을 없애고 社會主義的 生活樣式을 確立하기 위해 鬪爭하고,

② 女性들 속에서 思想革命을 強化하여 女性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하는 事業을 첫째가는 義務로 여겨야 하고,

③ 階級敎養을 基本으로 하는 共產主義敎養을 강화하고, 千里馬 作業班 運動을 적극 推進하며,

④ 後代들에 대한 敎養強化로 어린이를 革命의 믿음직한 後備隊로 養成하고,

⑤ 革命的 警覺心을 더욱 높여 戰爭에 對處하기 위한 準備事業을 강화하며,

⑥ 人民軍 援護事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女盟의 綱領은 「金日成將軍이 發表한 20個政綱을 그 基礎로 한 朝鮮民主主義政權樹立을 위해 總力量을 集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女性들의 權益을 擁護한다는 것이 아니라 勞動黨이 내세운 政策과 金日成이 제시한 課業을 실천하기 위해 女性들의 모든 勞力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女盟組織은 中央委員會가 있고, 金日成의 妻 金聖愛가 委員長으로 되어 있으며, 副委員長은 姜占淑, 최성숙, 정명희, 김옥순, 왕옥환, 황순희, 리숙영, 허창숙 등이고, 書記長은 李秀月이다. 그리고 道(直轄市)委員會, 市(區域)郡委員長, 初級團體委員會(里, 職場單位)로 下部까지 組織되어 있고 盟員數는 270萬名 以上에 達하고 있다. 아울러 北韓의 女性으로서 滿18歲 以上の 모든 女性은 義務的으로 加入하게 되어 있다.

최근 北韓은 날로 심각한 人力難을 해결하기 위하여 女性人力의 資質向上을 圖謀하며, 점차 高級人力化시키기 위하여 각 方面으로 노력하고 있다. 女子들에게 科學知識과 技術을 習得케 하여 男子들이 맡았던 重工業分野나 高級技能分野까지 女子들로 交替시키려는 努力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1970年 11月 勞動黨 第5次大會에서 重勞動과 輕勞動의 差異를 좁히고 女性을 부엌으로부터 解放한다는 3大技術革命의 課題를 내세워 女性들을 勞力動員에 집중적으로 投入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1958年 7月 19日에 採擇된 內閣決定 第84號에 의한 「人民經濟 各部門에 女性들을 더욱 引入시킬데 대하여」라는 決定 以後에 北韓의 女性들은 強制勞動에 酷使 당하여 왔던 것이다. 더구나 北韓政權史上 처음 열린 「全國勞動行政일꾼大會」(1979.9.25~27)에서 「특히 女性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부문에 청장년들의 勞力을 配置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 部門에 배치되어 있는 청장년들을 女性勞力과 바꾸어 채취 공업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에 돌려야 한다」고 力說하였다. 심지어는 女性을 부엌에서 解放시킨다는 美名下에 밥공장, 饑工場을 만들어 食生活의

集團化를 기하고 있는 것도 女性勞力動員을 極大化시키기 위한 方便이다.

또한 1976년에는 「어린이保育敎養法」이라는 것을 만들어 女性勞動力 擄取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4)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社勞青)

1946年 1月 17日 「北朝鮮民主青年同盟」으로 創立된 것이 始初이며, 그 후 1951年 1月 17日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으로 改稱하였다.

社勞青의 目的은 「勞動黨의 領導 밑에 北韓에서 社會主義의 完전한 勝利를 보장하며 全國的 범위에서 反帝·反封建的 民主主義 革命課業을 실현하고 社會主義·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하기 위해 鬪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社勞青의 課業은

① 青年들을 黨의 思想體系로 武裝시키고 黨을 목숨으로 지키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무조건 貫徹하고,

② 自力更生의 革命的 기치를 높이 들고 千里馬運動의 大高潮를 계속 堅持, 技術·文化·思想革命을 促進시켜 社會主義·共產主義를 더 잘, 더 빨리 建設키 위해 鬪爭하며,

③ 青年들 속에 學習氣風을 세우고 그들에게 마르크스·레닌主義 理論과 黨政策, 金日成의 勞作을 研究, 體得케 하여 共產主義 思想과 黨의 革命傳統으로 武裝시켜 階級的 원수를 미워하고 反帝, 地主·資本家制度를 反對하여 革命的 終局的 勝利를 위해 鬪爭하고,

④ 南韓을 美帝와 反動政治에서 解放하고 統一을 위해 鬪爭하며,

⑤ 南韓의 勞動青年, 農民青年, 青年學生 등과 各界各層 青年과의 統一 戰線을 強化하고,

⑥ 黨의 階級路線과 群衆路線을 貫徹, 靑年들을 共產主義的으로 敎養 改造하여, 黨 周圍에 묶어 세운다는 것 等이다.

이와 같은 目的과 課業을 부여받은 社勞靑은 소련의 「靑年同盟」이나 中共의 「共產靑年團」과 같이 共產黨의 指導下에서 行動하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無條件 擁護하며, 人民大衆에 浸透시키는 先鋒的 役割을 擔當하며, 黨의 後備隊로서 軍隊, 工場, 企業所 및 農漁村에서 黨의 支柱 役割을 擔當하며, 黨의 隊列을 보충해 주는 豫備黨員을 양성하고 盟員을 黨에 入黨할 수 있도록 敎養하며, 南韓을 赤化統一하기 위한 人的資源의 役割을 하며, 勞動力 動員의 중추적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것이다.

組織現況은 中央委員會 委員長에 李榮洙가 選任되었고, 副委員長은 金蒼龍, 南在煥, 손기학, 현석, 정명희, 박정선, 최룡해 등으로 되어 있으며 傘下組織으로 道(直轄市)委員會, 市(區域)郡委員會, 初級團體委員會(工場, 企業所, 協同農場, 政權機關, 教育文化保健機關, 人民軍隊) 등이 있고, 北韓의 滿 14~30歲까지의 靑年, 學生을 加入對象으로 하며, 現在 約 400 萬名으로 推算되는 盟員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社勞靑의 傘下에 少年團을 두고 이를 指導育成함으로써 少年들까지 革命化·勞動階級化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들은 最近 1981年 5月 6日~7日까지 平壤에서 「社勞靑 中央委員會 第23次 全員會議」를 開催하고, 社勞靑 中央委員, 候補委員, 道·市·郡과 工場·企業所 일꾼들이 모여서 「黨 中央委員會 第6期 第3次會議 (1981.4.1~2)에서 金日成의 敎示를 貫徹할 데 대하여」를 議論하였는데, 委員長 李榮洙는 同大會에서 다음과 같이 報告하였다.

- ① 대안의 사업체제 貫徹을 위한 組織政治事業의 強化
- ② 工場·企業所 社勞靑 組織들의 戰鬪的 機能과 役割의 提高必要
- ③ 「社勞靑」 일꾼들의 經濟實務 水準提高와 事業方法 改善強調

④ 3大革命 붉은旗 爭取運動과 숨은 英雄들의 模範을 따라 배우기 위한 運動에서의 「社勞青」組織들의 役割強調 等이다.

그리고, 1981年 10月 20日~ 24日까지 平壤에서 개최된 「社會主義 勞動青年同盟 第7次大會」에서는 金日成과 金正일을 비롯한 黨·政 高位幹部와 130個國의 184個 代表團이 參加한 가운데 「南朝鮮 및 海外同胞 青年들에게 보내는 呼訴文」을 채택하면서 「南北 및 海外同胞 青年學生들로 구성되는 統一促進 青年會議을 召集하자」는 提議를 내놓았다.

社勞青은 勞動黨의 前衛組織으로 大會를 4年에 1回씩 開催토록 되어 있으나, 통상 7~8年만에 開催하여 왔으며, 이번 第7次大會는 1971年 6月 第6次大會 以後 10年만에 開催된 것이다.

그런데 이 第7次大會에서 나타난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1980年 10月 第6次黨大會때 序列 4位로 公式 發表된 金正일이 1年만에 序列 2位로 格上되어 그의 權力承繼地位를 鞏固히 하였고,
- ② 「社勞青」 加盟員이 1971年 第6次大會때의 270萬名에서 400萬名으로 增加, 「社勞青」 組織이 北韓 最大의 社會團體로 擴大되었으며,
- ③ 同 大會를 國際的 規模로 誇示하기 위하여, 130個 國家에서 65個國의 公式代表團을 포함하여 184個의 代表團을 招請하였고,
- ④ 委員長은 報告를 통하여 「社勞青」의 큰 事業成果는 「靑少年들이 金日成에 忠實하고 代를 이어 革命을 繼續하여 나갈 主體偉業의 繼承者로 키운 것」이라고 讚揚하고 「靑少年들이 南朝鮮 青年學生들과 人民들의 正義의 鬪爭을 支持聲援하는 것은 民族의 任務」라고 強調하면서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낫과 망치를 들라」고 強調한 점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行事は 金日成 父子의 世襲體制 基盤을 다지고, 權力承繼의 前衛組織으로 活用하려는 意圖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부진한 經濟課業 打開을 위한 靑少年들의 勞力動員을 促求하여 經濟難을 克服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또한 同大會에 青年學生組織과 主體思想研究小組 等 外國 祝賀團의 大量招請은 金日成·金正日體制의 國際的 認識과 아울러 國際力量을 誇示하고, 國際青年組織과의 連繫下에 한국의 孤立化를 劃策하려는 企圖로 評價된다.

끝으로 「南朝鮮 및 海外同胞 青年學生들에게 보내는 呼訴文」을 採擇하고 「統一促進 青年會議」를 召集할 것을 提議한 底意는 韓國內의 一部 學生들에 대한 對政府鬭爭을 劃策하려는 陰謀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朝鮮少年團>

1946年 6月 6日에 「朝鮮少年團」으로 發足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朝鮮少年團은 社勞靑組織에 속하는 團體로서 少年團의 獨自的인 機構는 없으며, 社勞靑少年團部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初級團體와 分團으로 組織되어 있고, 人民學校와 高等中學校 中等班에 學年·學級別로 組織되어 있다.

그리고 加入對象은 滿 8歲부터 13歲까지의 少年들로서 團員數는 現在 約 300萬名으로 推算되며, 「共產主義 後備隊가 되기 위해 항상 배우며 準備하자」라는 口號를 부르짖고 있다.

朝鮮少年團은 社勞靑의 後備隊로서 基本任務는 團員들을 共產黨과 金日成의 命令과 指示에 절대 奉종케하여 革命鬭士로 養成하는 데 있다.

1976年 6月 6日 朝鮮少年團 創立 第30周年 行事때 「全國聯合團體大會」를 열고, 團員들에게 「金日成과 勞動黨에 끝없이 忠直한 共產主義 革命家로서 代를 이어 영원히 忠誠할 것」을 強要하였다.

또한 1981年 6月 6日 「朝鮮少年團」創立 35돌 記念報告會가 平壤의 2·8文化會館에서 열렸는데, 委員長 李榮洙가 報告했다.

이번 記念報告會에서도 少年團員들에게 社會 政治活動을 強化하고 또한 좋은 일하기 運動과 함께, 金日成 勞作學習과 金日成의 靑少年時節 따라 배우기 運動의 強化를 強調한 바 있다. 그런데 일련의 움직임은 勞動力 不足의 打開을 위하여 좋은 일하기 運動이라는 美名下에 나이 어린 少年團員들까지 各種 勞力動員에 參加시키려는 策動으로 보여진다.

나. 統一推進 前衛團體

北韓共產集團은 統一推進 前衛團體를 만들어 機會있을 때마다 對南宣傳과 煽動에 利用하고 있으며, 聲明이나 談話時에 주로 그 前衛團體의 名稱을 使用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前衛團體의 組織이 마치 南北을 代表하고 全民族을 代表하는 것처럼 偽裝하여 惡用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에서 南北韓의 各界各層의 代表로 구성되는 政黨·社會團體 會議를 하자고 提議를 할 때에도 마치 北韓에서 내세우는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의 基本路線에 南韓이 속해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무조건 參加하라는 식이다.

이러한 勞動黨의 前衛團體는 韓半島를 赤化統一하기 위한 鬭爭을 主目的으로 하여 組織된 團體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럴듯한 名稱을 使用하여 偽裝한다 해도 그 속셈은 뻔한 일이다. 즉 그러한 團體는 偽裝平和攻勢遂行을 위한 前衛組織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祖戰)

共產主義者들을 中心으로 1946年 2月 15日 결성된 「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과 1946年 7月 22日 결성된 「北朝鮮民主主義民族統一戰線」이 母體가 되어 1949年 6月 27日 金日成 一派는 南北民戰連席會議에서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을 結成하였는데, 現在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은 勞動黨을 비롯하여 友黨 및 外廓團體를 總網羅하고 있다.

現在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에 加入한 團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世界人民들과의 連帶性 朝鮮委員會
- ② 朝鮮 아시아·아프리카團結委員會
- ③ 朝鮮記者同盟
- ④ 朝鮮文學藝術總同盟
- ⑤ 朝鮮民主女性同盟
- ⑥ 朝鮮農業勤勞者同盟
- ⑦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 ⑧ 朝鮮職業總同盟
- ⑨ 朝鮮赤十字會
- ⑩ 朝鮮올림픽委員會
- ⑪ 朝鮮民主法律家協會
- ⑫ 朝鮮學生委員會
- ⑬ 朝鮮平和擁護 全國民族委員會
- ⑭ 祖國平和統一委員會
- ⑮ 朝鮮佛教徒聯盟
- ⑯ 朝鮮基督教徒聯盟
- ⑰ 朝鮮天道教會 中央指導委員會

- ⑮ 朝鮮天道教青友黨
- ⑯ 朝鮮社會民主黨
- ⑰ 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
- ⑱ 朝鮮工業技術總聯盟
- ⑳ 朝鮮勞動黨 等이다.

略稱「祖國戰線」이라고 불리우는, 이 團體의 任務는 勞動黨의 路線과 政策을 擁護貫徹하며 統一을 위하여 적극 鬭爭한다고 되어 있다.

北韓은 이 「祖國戰線」이 「北半部の 社會主義 力量과 모든 反帝·愛國力量을 團合시킴으로써 祖國統一과 革命의 전국적 勝利를 위한 鬭爭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祖國戰線」은 對南 偽裝平和統一攻勢 및 南韓의 赤化與件 造成을 위한 役割을 擔當하는 勞動黨의 前衛組織團體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北韓이 「祖國戰線」을 내세워, 6.25 南侵이 있기 19日前인 6月 7日 南北韓 最高立法機關을 設立하기 위한 總選舉를 실시하자느니, 平和統一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南北諸政黨社會團體協議會」를 열자느니 하는 提議를 하여 南侵計劃을 偽裝하려고 하였던 例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후 北韓은 기회 있을 때마다 「祖國戰線」을 내세워, 偽裝平和統一方案을 계속하여 提示했었다.

1973年 7月 24日 「祖國戰線」은 民主共和黨·新民黨·統一黨과 소위 「統革黨」 등의 政黨·社會團體와 海外僑胞團體를 포함하여 「大民族會議」를 召集하자고 提議해 오기도 했다.

또한 1979年 1月 19日 「祖國戰線」은 聲明을 통해,

- ① 7.4 共同聲明精神의 再認識
- ② 誹謗放送의 中止
- ③ 休戰線上에서의 軍事活動中止
- ④ 全民族大會召集 등을 提議하였다.

그리고 그 組織은 中央委員會 議長團(8名)⁴⁾과 中央委員(77名) 밑에 常任委員會(委員長:康良煜)를 두고, 그 直屬機構로 書記局(局長:여연구)⁵⁾과 祖國戰線社가 있다.

1982年 1月 28日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의 書記局長 여연구는 談話를 통해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1982.1.22提議)에 대한 반박 聲明을 發表한 바 있다. (中央·平壤放送, 1982.1.28. 07:00)

(2) 祖國平和統一委員會(祖統)

祖國平和統一委員會는 1961年 5月 13日 結成되었는데, 이것은 4·19 直後에 南北協商論 등에 呼應하기 위하여 急造된 團體로서 勞動黨의 偽裝平和統一政策을 宣傳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 委員會의 任務는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朝鮮人民 自身の 손으로 여하한 外國의 干涉도 없이 民主主義的 基礎위에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실시하는 方法으로 成就할 朝鮮勞動黨의 시종일관한 方案을 支持한다」라고 하여 분명히 勞動黨의 路線과 政策에 따르겠다는 것을 못박았다.

이 委員會에서는 平和統一問題와 관련된 諸般方案 및 南北交流 등에 관한 研究와 남북어부의 洗腦工作活動을 맡아서 處理하고 있다. 또한 機會있을 때마다 各種 聲明, 談話, 書記局報道 등을 통한 反韓·反美 謀略活動을 展開하고 있다.

創立當時엔 洪命憲를 委員長으로 하고 33名의 準備委員會를 構成하였으

註4) 林春秋, 徐哲, 許貞淑, 金萬金, 鄭東喆, 洪起文, 楊亨燮, 鄭斗煥.

註5) 北韓의 中央放送, 平壤放送(1982.1.28)에 의하면 「조국전선」 書記局長의 談話에 여연구가 처음 등장하고 있으며, 許貞淑은 黨秘書의 資格으로 「朝鮮職業總同盟」 6次大會(1981.11.27~30)에 參席한 바 있다.

며, 副委員長은 朴金喆 등 6名이고, 77名의 中央委員으로 되어 있었다.

現在는 委員長에 金一(朝鮮勞動黨中央委員會 政治局 常務委員인 第3人者)이 맡고 있으며, 副委員長은 洪起文, 許貞淑, 尹基福, 全今哲, 康良煜, 李克魯, 黃鳳九, 鄭浚基, 김광친, 金錫亨, 趙明日, 白南雲 등이 맡고 있고, 政黨·社會團體의 各界各層 人士들로 總網羅되어 있다.

1980年 1月에는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委員長 金一과 總理 李鍾玉이 우리나라 申鉉禧 國務總理를 비롯한 各界人士 12人에게 南北間 接觸을 하자는 提議를 해 오기도 했으며, 機會있을 때마다 僞裝平和統一政策을 提議해 오고 있다.

1981年 5月 12日 平壤에서 「祖國平和統一委員會」結成 20周 記念報告會를 開催했다.

이 記念報告會에는 金一(副主席 兼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委員長), 林春秋(中央人民委員會 書記長), 尹基福(黨秘書 兼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副委員長), 정준기(副總理), 정신혁(天道教青友黨 委員長), 金萬金(平壤市 人民委員會 委員長), 정두환(朝鮮平和擁護全國民族委員會 委員長), 洪起文(祖國平和統一委員會 副委員長), 金鳳柱(職總委員長), 張允弼(前農勤盟 委員長), 李榮洙(社勞青 委員長), 金基南(記者同盟 委員長), 최영화(文藝總 副委員長), 박태호(佛教徒聯盟 委員長), 趙憲泳(在北平和統一 促進協議會 書記局長) 등이 參席했다.

報告內容은 所謂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을 위한 「民族大統一戰線」 構成, 駐韓美軍撤收, 그리고 美國과 直接 平和協定 締結, 提議를 主內容으로 하고 있다.

또한 特記할 것은 지난 1982年 1月 22日 우리側이 提議한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에 대하여, 立場을 祖國平和統一委員會 委員長 金一(副主席)의 명의로 北韓側의 公式反應(1982.1.26)을 보인 바 있다는 점이다.

(3) 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

1956年 7月 2日에 創立된 「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는 6.25 當時 남북인사들로 偽裝平和攻勢를 위하여 組織한 團體들이다. 즉 安在鴻, 趙素昂, 尹琦燮, 吳夏英 等 남북인사들을 發起人으로 하여 結成하였다.

1958年 後半에 남북인사들에 대한 大量肅清으로 有名無實한 團體로 轉落해 오던중, 1981年 7月에 처음으로 結成報告大會를 열었고, 對南宣傳에 큰 意義가 있다고 판단되었던지 金日成이가 祝賀便紙를 보냈었다. 또한 同年 8月 15日을 期하여 南韓의 政黨 및 各界人士들에게 便紙를 보냈다.

組織現況을 보면 代表者는 趙憲泳(最高委員兼 書記局長)이고 常務委員으로 박보림, 최태규, 金錫亨, 박시형, 유숙근, 김철성 等이 있으며, 그밖의 人物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4) 朝鮮平和擁護全民族委員會

이것은 1949年 3月 24日 世界平和와 反帝國主義·反植民主義를 標榜하여 組織된 勞動黨의 御用團體이다.

이 團體의 任務는 反韓·反美的인 各國의 平和標榜團體와의 連繫下에 反韓·反美宣傳活動을 展開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委員長은 鄭斗煥으로 되어 있고, 副委員長은 김주영, 송관조, 조명일, 류해영, 주창준, 박민수, 박영시, 리중철, 유영걸, 정기철 등으로 되어 있다.

(5) 朝鮮赤十字會

1946年 10月 18日 「北朝鮮赤十字會」로 創設되었으며 그후 1948年 北韓共產政權이 樹立되면서 「朝鮮赤十字會」로 改稱되었다.

「朝鮮赤十字會」의 規約에 보면,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赤十字會는 人民들의 大衆的 社會團體로서 富強한 民主主義的 朝鮮獨立國家 建設을 위하여 積極 努力하며, 國際赤十字條約에 기준하여 人民들의 保健·文化生活의 向上과 戰爭 및 災難時의 被害者 救濟事業을 실시하며, 나아가서는 世界平和와 安全을 위하여 鬪爭한다」고 規定되어 있으나, 實際로는 診療事業과 防疫事業 등의 人道的 事業에는 等閑視하고 本然의 任務와는 달리 勞動黨 統制에 의한 宣傳機構 구실 밖에 못하고 있다.

組織現況은 1971年 以來 孫成弼이 中央委員會 委員長職을 맡고 있으며, 副委員長은 朴英時, 金泰禧, 田仁徹, 한홍섭, 오문한, 김효근 등이 맡고 있다. 傘下組織으로는 道(直轄市)委員會와 市(區域)郡委員會가 있다.

그런데 特記할 것은 1971年 8月 1日 大韓赤十字社가 南北韓間의 離散 家族찾기運動을 구체적으로 協議하기 위해 「南北赤十字會談」을 提議하고, 1971年 8月 14日 北側이 이에 同意함에 따라 「南北赤十字會談」이 열렸었다. 南北雙方은 豫備會談 全體會議 25回, 實務會談 16회를 열어 諸般問題를 討議決定하였으며, 1972年 8月 30日 平壤에서 第1次本會談이 開催된 後, 서울과 平壤을 번갈아 가면서 7回의 本會談을 開催하였으나, 第3次 本會談에서 北側이 「南韓의 法律的, 社會的 障礙要素를 除去하고 條件과 環境을 改善하라」는 內政干涉的인 要求를 提示함으로써 進展을 보지 못하였으며, 특히 1973年 8月 28日 「南北調節委員會」 北側代表 金英柱의 一方的인 宣言에 의하여 對話와 接觸이 中斷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北韓共產集團은 人道的인 赤十字精神을 政治的으로 惡用하면서, 所謂 條件·環境改善(反共政策拋棄 등)을 되풀이 하여 進展없이 空轉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最近에는 會談議題보다는 內政干涉的 誹謗에 더욱 熱을 올리고 있다.

다. 文化·藝體能團體

北韓의 文藝政策의 基本路線은 文學·藝術을 통하여 黨政策의 具顯 및 宣傳讚揚, 金日成 偶像化, 共產主義의 人間改造, 政治思想敎養, 勞動意慾提高와 勞力動員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따라서 北韓의 文學·藝術은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에 立脚한 創作方法이 그 基調를 이루고 있으며, 社會主義的인 內容과 形式의 採擇은 人民性·階級性·黨性을 강조하여 黨政策宣傳 및 이의 具顯과 政治思想 啓蒙手段 등으로 이용함으로써 純粹藝術性을 抹殺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北韓에 存立하는 文化·藝術團體는 모두가 御用團體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1) 朝鮮文學藝術總同盟(文芸總)

朝鮮文學藝術總同盟은 당초 1946年 3月 25日 北朝鮮文學藝術家同盟으로 結成되었다가, 1951年 3月 10日에 「朝鮮文學藝術同盟」으로 改稱하였다.

처음에는 韓雪野가 委員長職을 맡았으며, 傘下團體로서 「作家同盟」, 「音樂家同盟」, 「美術家同盟」, 「舞踊家同盟」, 「演劇人同盟」, 「映畵人同盟」, 「寫眞家同盟」 등 7個 團體를 두었다.

지금은 委員長에 李箕永, 副委員長에 申鎮順, 崔榮華, 李冕相, 趙靈出이고, 作家同盟委員長 千世鳳, 音樂家同盟委員長 李冕相, 美術家同盟委員長 鄭寬徹, 寫眞家同盟委員長 高龍鎮, 舞踊家同盟委員長 金在興, 演劇人同盟委員長 李丹, 映畵人同盟委員長 李鎮淳 등으로 組織되어 있다. (同委員長 李箕永은 1982. 2.1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 대한 誹謗談話를 發表하였다.)

(2) 朝鮮記者同盟

1946年 10月 12日 創立된 「朝鮮記者同盟」은 各 新聞社, 放送委員會, 雜誌社 從事者들의 組織體로서 勞動黨의 宣傳煽動에 이용되고 있는 道具에 불과하며, 委員長에 金基南(로동신문 主筆), 副委員長은 박재우, 金時學, 조용남, 韓중택, 金성걸, 구일선, 정하천, 박찬근 등이다.

1981年 10月 12日 平壤 모란봉藝術劇場에서 「朝鮮記者同盟」創立 35돌 記念報告會가 있었는데, 金基南은 이 자리에서 報告를 통해 金日成 父子의 業績을 讚揚하고 「出版·報道活動에서 主體의 原則과 速度戰을 벌일 데 대한 原則을 貫徹했다」고 記者同盟의 業績을 讚揚하면서 「革命鬪爭과 建設事業에서 集團의 組織宣傳者로서의 役割을 훌륭히 遂行했다」고 덧 붙였다.

記者同盟의 當面課題로 「同盟의 戰鬪的 機能과 役割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全體記者·編輯員들이 10大展望目標를 앞당겨 占領하기 위한 鬪爭에 모든 지혜와 能力을 바쳐야 한다」고 내세웠다.

또한 「組織內에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튼튼히 세우고 記者·編輯員들은 大衆을 힘있게 動員하는 政治活動家로 文筆家로 만드는 데 주된 힘을 넣어야 한다」고 強調한 바 있는데, 그것은 바로 金日成·金正日 父子의 世襲體制를 正當化하는 데 言論을 최대한 利用하고, 또한 勞力動員 등 勞動力 搾取를 위해 言論媒體를 이용한 宣傳煽動에 더욱 拍車를 加하고자 하는 意圖인 것이다.

(3) 朝鮮體育指導委員會

1946年 5月 8日 「北朝鮮體育總聯盟」이 結成되었고, 그 뒤에 「朝鮮體育指導委員會」로 改稱되었다. 이것은 體育活動을 통하여 勞動黨의 路

線과 政策을 擁護하는 御用團體로서, 이른바 國防體育을 통하여 赤化野慾을 달성키 위한 戰鬪力 養成에 注力하면서 好戰的인 분위기를 진작시킬 뿐만 아니라 機會있을 때마다 스포츠關係 對南提議 및 聲明을 내는 등 政治的 目的으로 利用되고 있다.

그리고 1959年 7月 5日에 各道에 「體育幹部養成所」를 設置하여 黨性이 높은 勞動黨의 熱誠分子를 教育시키고 있다.

組織現況은 金裕順이 委員長職에 있고, 副委員長(8名)⁶⁾과 書記長이 있으며 傘下團體로서는 23個의 競技團體가 組織되어 있다.

(4) 朝鮮올림픽委員會

「朝鮮올림픽委員會」는 體育을 통한 外交活動의 일익을 擔當하며, 各種 國際會議에 代表를 파견하여 共產圈 國家들과 連繫下에 韓國의 孤立化를 위한 對韓 謀略宣傳活動을 하고 있는 御用團體이다.

北韓은 이 朝鮮올림픽委員會를 통하여, 1962年 7月 28日에는 「東京올림픽大會」(1964年 開催)에 南北韓混成팀을 파견하자는 一方的인 提議를 하여 對南宣傳活動을 하였으며, 또한 1964年 2月 1日 인스브르크에서 開催된 冬季 올림픽大會에서도 呼稱問題에 불만을 품고 聲明을 發表한 바 있다. 또한 1964年 10月 2日 東京올림픽大會에 參加했다가 생트집을 잡아 10月 8日에 모두 撤收하는 추태까지 자행하였다.

그리고 1952年부터 I.O.C에 加入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0年 뒤인 1962年 6月 5日에 겨우 加入이 許容되었다.

組織現況을 보면 金裕順이 委員長이며, 副委員長으로는 리창선, 孫吉川 등이 있다.

註6) 김득준, 박무성, 김기학, 박명철, 강성진, 양수봉, 정병필, 리창선.

라. 宗教團體

北韓의 宗教政策은 근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宗教觀을 기초로 하고 있다. 宗教를 아편으로 규정하고 否定하는 共產集團의 社會에서 宗教團體가 제대로 存立하면서 독자적인 活動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不問可知라 하겠다.

北韓은 6.25 南侵 以前까지는 宗教集團의 活動에 대하여 일시 宥和政策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戰爭後부터는 本格的인 反宗教政策의 실시로 모든 宗教團體가 廢止되고 말았다.

그러나 北韓의 憲法 第54條에는 「公民은 信仰의 自由와 反宗教宣傳의 自由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宗教의 自由가 抹殺된 狀態다.

(1) 朝鮮基督教徒聯盟

1946年 11月 28日 「北朝鮮基督教聯盟」이 結成되었다가, 그 다음 해 2月 24日 「基督教民主聯盟」으로 改稱하였고, 여러 차례 改稱과 潛跡의 過程을 거쳐 1974年에 所謂 「朝鮮基督教徒聯盟 中央委員會」가 出現하였다.

北韓은 「10月維新」以後 宗教人들이 反維新活動을 展開하자, 갑자기 「朝鮮基督教徒聯盟 中央委員會」명의로 非難聲明을 發表하고, 世界各國 宗教團體에 까지 便紙(呼訴文)를 보내는 소동을 피웠고, 계속하여 「民青學聯事件」과 關聯하여 對南非難聲明을 發表한 바 있다.

그들 團體의 綱領에도 「人民의 愛國熱을 환기하며 朝鮮의 完全獨立을 위하여 建國事業에 一致協力할 것」을 規定함으로써 宗教團體를 勞動黨의 御用團體로 못박아 두었다.

現在 康良煜이 委員長職을 맡고 있으며, 金成律, 김득룡, 염국렬이 副委員長, 고기준이 書記長을 맡고 있다.

(2) 朝鮮佛敎徒聯盟

1945年 11月 26日 「北朝鮮佛敎徒聯盟」이 結成되었다가, 1948年에 「北朝鮮佛敎聯合會」로 改稱되었다. 그 後 1950年부터는 潛跡했다가 여러 차례 우여곡절 끝에 1972年 갑자기 「朝鮮佛敎徒聯盟 中央委員會」가 出現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朝鮮基督敎徒聯盟」과 같이 1973年 8月 31日 同聯盟 委員長 안숙용이 對南非難聲明 發表를 시작으로 하여 계속 對南宣傳과 煽動에 熱을 올리고 있다.

綱領에 있어서도 「政府政綱을 받들고 이것을 徹底히 實踐·實現하기 위하여 鬪爭하며」, 「人民軍隊에 대하여 積極援助」하고, 「佛敎徒들에게 勤勞精神을 昂揚시켜」云云하여 勞動黨의 路線과 政策을 極力擁護하는 御用團體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現在 박태호가 委員長이며 홍화두가 副委員長職에 있다.

(3) 朝鮮天道敎會中央指導委員會

1946年 2月 1日 天道敎北朝鮮宗務院으로 創立하였으나, 그 후有名無實하게 潛跡했다가 갑자기 1974年 2月 15日에 出現하여 「朝鮮天道敎會中央指導委員會」라는 이름으로 「南朝鮮宗敎인과 海外朝鮮人 宗敎團體와 世界宗敎團體들에게 보내는 便紙」를 採擇하여, 韓國의 維新憲法과 緊急措置에 대한 非難과 民青學聯事件과 관련하여 呼訴文을 보내는 등, 對南宣傳 煽動活動에 熱안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이 이른바 「朝鮮天道敎會中央指導委員會」라는 團體도 名稱만 存在하는 勞動黨의 御用宗敎團體이며, 鄭信赫이 委員長職을 맡고 있고, 김철

민이가 副委員長職을 맡고 있다.

以上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北韓共產集團은 宗教團體를 有名無實하게 放置해 두었다가 南北對話가 시작되던 1972年頃에 모두 復活시켜, 對南聲明·呼訴文 등을 發表하는 道具로 利用하고 있다.

마. 學術團體

(1) 朝鮮民主科學者協會

「朝鮮民主科學者協會」는 1956年 3月 18日 發足되었다.

이 協會는 科學者 技術者들이 加入하여 勞動黨의 科學政策을 수행하는 前衛隊의 役割을 담당하고 있으며, 各種 國際科學者 會議에 代表團을 파견하여 金日成의 革命思想과 科學技術 成果를 과장하여 海外에 宣傳하는 機能을 맡고 있다. 또한 南韓의 科學者 및 技術者를 대상으로 各種 聲明이나 呼訴文을 통한 對南煽動 活動에 注力하고 있는데, 現在 白南雲이가 委員長職을 맡고 있으며, 洪起文이 副委員長職에 있을 뿐, 다른 人物은 公式席上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2) 朝鮮民主法律家協會

이 協會는 1954年 11月 30日에 創立된 것으로 勞動黨의 御用法律家 組織으로서 勞動黨의 權力을 保衛하기 위하여 存在하는 機關이다. 平壤에 「朝鮮民主法律家協會」가 있고, 各 道마다 「辯護士會」가 있다.

이들의 活動은 各種 聲明이나 談話를 통한 對南宣傳과 反韓·反美的인 各國의 法律家 및 法律家協會團體들과 連繫下에 反韓·反美 謀略宣傳 등을 일삼고 있으며 崔民信이 委員長職을 맡고 김철운이가 副委員長職을 맡고 있다.

(3) 朝鮮學生委員會

1960年 5月 20日 「朝鮮學生委員會」가 創立되었는데, 이것은 韓國에서 4.19 以後 극도로 混亂한 中에 서울大學生들이 「南北學生會談」을 開催하자는 提議에 의하여 急造된 御用團體이다. 그런데 이 團體는 對南宣傳·煽動活動을 비롯하여 各種 國際學生會談에 代表團을 파견하여 世界 左翼系 學生들과 連繫하여 反韓·反美活動을 展開하고 있으며, 金蒼龍이 委員長職에 있고, 副委員長은 최화식, 리철신, 리화순, 리종기, 현석, 리성국등이 맡고 있다.

바: 國際宣傳團體

北韓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新生獨立國과 親善·協調關係를 발전시키고 이들 地域 人民들의 反帝·反植民·民族解放運動과 모든 나라들과의 革命運動의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하여 對外政策의 일환으로 國際宣傳團體를 組織하여 世界人民들과 連帶性을 強化해 나가고 있다.

(1) 朝鮮아시아·아프리카團結委員會

1956年 5月 31日에 創立된 「朝鮮아시아·아프리카團結委員會」는 1955年 「반동會議」以後, 中立國 내지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地域의 新生國家에로 外交關係를 확대하여 接近을 試圖하기 위한 目的으로 設立하게 된 團體이다. 이러한 對外政策의 變化를 試圖한 것은 오랫동안의 中蘇 偏向外交의 方向에서 脫皮하여, 1966年 8月 12日에 自主路線을 표방하면서 조심스럽게 新生國家에게 接近해 가는 外交政策을 나타낸 결과이다.

이 團體는 아시아·아프리카人民들과 連帶性을 強化하여 反韓·反美謀略

煽動에 앞장 선 勞動黨의 御用團體로서, 金鳳柱(職總委員長)가 委員長職을 맡고 있으며, 副委員長은 리호남, 명창선, 강주일, 박영시가 맡고 있다.

(2) 世界人民들과의 連帶性 朝鮮委員會

北韓은 世界平和와 反帝·反植民主義 鬭爭을 하는 世界 人民들과의 連帶性을 強化한다는 美名下에 「世界人民들과의 連帶性 朝鮮委員會」라는 勞動黨의 御用團體를 만들어, 1974年 8月부터 金寬燮이 委員長職을 맡고 있으며, 副委員長은 김용순, 최용근, 한익수, 김상준, 정기철, 김형우 등이다. 그런데 이들의 주된 活動은 韓國을 國際적으로 孤立시키기 위하여 海外의 連帶性 관련기관에 謀略宣傳을 하고 있으며, 反美鬭爭에 앞장서서 活動하고 있다.

(3) 朝鮮對外文化連絡協會

이 協會는 1956年 4月 民間水準의 親善 및 文化交流를 앞세우고 中立國·西方諸國에 浸透하여 對外活動을 전개할 目的으로 創立되었다.

이 團體는 1955年 4月的 「반둥會議」를 계기로 北韓이 對共產圈 일변도 外交에서 다변외교(中立圈 및 新生獨立圈外交)로 轉換함에 따라 急造된 團體인 것이다.

이 機構는 黨 國際部 및 政務院 外交部, 文化藝術部 등과 緊密한 連繫를 가지는 部處級 機關으로서 所謂 民間外交를 主導하고 있으며, 傘下에 海外各國에 組織되어 있는 「各種親善協會」, 「金日成研究小組」, 「北韓支持連帶性委員會」 등이 있고, 組織現況으로는 金寬燮이 1973年부터 現在까지 委員長職에 있으며 副委員長職은 김태희, 최용근, 오문환, 현준극, 김우중, 김상준, 장세극, 한익수, 박영시, 김주영, 함영호 등이 맡고 있다.

4. 結 論

北韓의 모든 社會團體는 勞動黨의 外廓團體이며, 名義만 있는 御用團體이며, 傘下 前衛組織이다. 北韓共產集團은 北韓住民들을 몇개의 團體에 義務적으로 加入시켜 묶어둠으로써 黨의 事業指導와 思想敎養組織으로서 管理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일단 유사시에는 最大한 社會動員을 能率的으로 施行할 수 있도록 集團化·組織化 해 놓은 하나의 兵營社會라고 할 수 있다.

北韓에는 오로지 勞動黨 一黨獨裁만이 있을 뿐이며, 政黨도 友黨도 없다. 有名無實한 2개의 이른바 政黨은 政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社會團體는 필요에 의하여 雨後竹筍 같이 創設되었다가 필요한 時期가 지나면 潛跡하는 作態를 續出하는 御用團體들 뿐이다.

韓國의 國內情勢가 不安하고 社會가 混亂하면 제 철을 만난듯이 모든 北韓의 社會團體들은 對南統一提議를 비롯하여 各種 宣傳用 聲明·談話·呼訴文에 이르도록 일대 宣傳攻勢의 砲門을 열어 일제히 社會團體의 이름이 쏟아져 나오고, 意圖대로 되지 않으면 표독스러운 誹謗·非難一色으로 戰術을 바꾸는데 利用되고 있다. 이러한 實例는 南北對話 以後 潛跡했던 宗教團體들이 급거 復活하여 對南·海外聲明戰을 벌인 것을 비롯하여 이러한 예는 허다하다.

또한 北韓內部에 權力構造上 큰 變化의 움직임이 있을 때는 例外없이 모든 社會團體들이 일어나 金日成一派의 業績에 대한 支持讚揚과 忠誠을 誓約하는데 利用되고 있다.

1981年 한 해 동안에도 金日成·金正日 父子世襲化를 公認하려는 準備作業으로 1980年 10月 第6次 黨大會에서 金正日의 地位를 格上시키는데 이어 各種 社會團體의 記念會議를 통해서 再確認되었으며 특히, 社勞青 第7次大

會에서는 金日成과 金正日이 나란히 나타나 「金日成에 忠實하고 代를 이어 革命을 繼續하여 나갈 것」을 強調하며 國際的 支持를 얻어보려는 속셈으로 130個國 184個 代表團을 불러 들였으며, 이같이 무슨 記念報告會나 하여 少年團은 물론 社會團體를 政治目的으로 利用하고 있다.

最近에는 全斗煥大統領께서 提議하신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 대하여 모든 社會團體들이 차례로 對南聲明이니, 談話나 하여 反駁聲明戰에 總動員되고 있다.

以上에서 北韓의 諸政黨·社會團體들의 特殊性을 說明한 바와 같이, 이러한 團體들은 住民들의 利益을 擁護하기 위하여 自生的·自律적으로 組織된 團體들이 아니라 金日成 一派와 勞動黨의 御用團體이며, 前衛組織 이라는 것을 다시 強調하는 바이다.



〈非賣品〉

北韓實態(Ⅱ)

1983年 2月 21日 印刷

1983年 2月 22日 發行

發行處：統一研修所

